朝鮮日報 夕刊 十二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옴 피부병 이벡고 가려움증 青山膏

紀元佳節을期하야 總攻擊을開始!
京漢線方面의十萬敵軍에 支那軍은士氣沮喪

【北京十一日發同盟】軍司令部十一日午後六時發表 京漢線方面의 我軍은 紀元의佳節을期하야 早曉 湯陰北方敵陣地에 總攻擊을開始하엿다

【北京十一日發同盟】紀元의 佳節을期하야 我軍이 總攻擊을開始한 京漢線前面의敵은 約十萬으로 推定되는데 前線에는 萬福麟、馮治安、石友三等 昨夏 事變發生直後 我軍에게 擊散된 各將領이 引率한 敗殘雜軍이 布陣하여잇고 督戰次로 其後方에 若干의中央軍 四川軍이 布陣하고잇다 그러나 半歲에亘한 敗戰으로 第一線支那軍의 士氣는 全然 沮喪되여 戰意를일코 湯陰으로부터 淇縣까지의 京漢線은 어미 軌道를 破壞하야 退却姿勢를 取하고잇는現狀인데 大勢는 벌서決定되여잇다 湯陰에는 相當히 陣地도構築되여잇고 後方의 督戰도잇서서 相當히 抵抗을試하리라고 豫想된다

【彰德十一日發同盟】津浦線의 形勢에 서로呼應하야 京漢線의 戰機는 갈수록 完熟하게되엿는데 지난七日에는 南樂、八日에는 淸豐、九日에는 濮陽을占領함에 미처 戰機는 愈愈完熟하야 十日午後 彰德一帶의 前線地帶는 殷然活氣를呈하게되엿다 遼山、森田、石田等各部隊를 爲始하야 岩倉、北毛、中尾、今田等新銳部隊는 彰德城南方數里에 展開하야 呼應하야 富川、池田、稻、石黑、岡本各砲兵隊는 砲列을布하고 南方을 凝視하고잇다가 十一日의紀元節의佳辰을 卜하야 午前六時 一齊히 戰端을열어 進擊을 開始하야 砲聲은 殷殷히 早春의 河南曠野를 震撼하고잇다 湯陰附近에는 石友三、萬福麟等이 指揮하는 敵三個師 約一萬五千이 布陣하고 頑强한抵抗을 繼續하고잇스나 我將兵의 士氣는 益益昂揚되여 이미黃河를 呑下할 氣慨를示하고잇는바 彰德城入城後 約三個月에 河南의 曠野는 再次皇軍의 威武에 戰慄하고잇다

敵軍續續退却開始

【彰德十一日發同盟】紀元節을期하야 一齊히 戰端을 開始한我軍의 猛擊으로 京漢線의 敵은 湯陰北方一帶의 要地에 布陣한 萬福麟軍約二千이 午前八時半 我砲彈의 猛擊에 崩潰되기始作하자 各方面의 敵은 午前中 續續退却을 開始하엿다 當日 我○○部隊長은 스사로馬를 第一線으로모라 天地를 震撼하는 砲聲裏에 全軍指揮에 當하엿다

內閣告諭、訓令으로 詔書、勅語聖旨徹底化

【東京電話同盟】政府는十一日에 賜하압신 恩赦에關한 詔書及勅語의 聖旨를 一般에 徹底케하기爲하야 同日午後四時 內閣告諭及 全官吏에 對한訓令을 發하엿다

內閣告諭

今日憲法發布五十年에 際하야 聖恩宏大 特히恩赦의 恩澤을 施하압시고 더욱 祝賀式典을 擧行함에當하야 惶悚하압시게도 御名代秩父宮殿下의 台臨을 辱케하시고 特히優渥하압신 勅語를 賜하압신 聖慮宏遠에 實로 恐懼感激不堪하다 恭惟하건댄 明治天皇憲法을 欽定하압시사 擧國의 本義를 明徵히하고 臣民翼贊의 道를 闡明하압시사 이로써國家의 不拔의基礎를 確固히하시고 萬民이모도 奉公의道를得하야 爾來星霜玆에 五十年 國運은伸張하고 國威는 宣揚하엿다 삼가聖德洪業을 奉仰하야 바야흐로 擧國의 理想을 顯揚할 實力이 內로 充實하고 東亞永遠의平和를 確立할局面이 外로 展開되엿다 무릇立憲治下의 國民된者 맛당히 立憲의 本

內閣訓令

內閣總理大臣公爵 近衛文麿

【東京電話同盟】今日憲法發布五十年에際하야 聖恩宏大 特히 恩赦의恩澤을 施하압시고 더욱 祝賀式典을 擧行함에當하야 惶悚하압시게도 御名代秩父宮殿下의 台臨을 辱케하시고 特히 優渥하압신 勅語를 賜하압시와 臣民輔翼의 道를 諭하압신 聖慮宏遠 진실로 恐懼感激不堪하는바이다 이에 內閣告諭를發하야 全國民이 다 其分에 忠을 다하야써 皇運을 맛드러 扶翼하기를 期待한다 무릇 職을官에 奉한者는 施政奉行의 重責을 負하고 모름지기 恒常時勢의進運을 察하고 大憲의條章을 遵奉하야 愆치말고 其職司에 恪循하야 私를無히하야 和協一心 至忠至誠으로써 報効의誠을 效하고 擧國의 理想을 中外에 發揚하야 立憲의 洪猷에奉應하기를期하라 길勅語의 聖旨를 奉하고 스사로 恪勤精勵하야時務의重에 任하기를 望한다

昭和十三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 公爵 近衛文麿

閑院宮殿下 御參內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十一日午前十時四十五分 宮中에御參內하시와 天皇陛下께 拜謁하시고 御所管事項을御奏上、種種御下問에 御奉答하시고 御前을退下하시엿다

優渥한勅語下賜

【東京電話同盟】惶悚하압시게도 天皇陛下께압서는 十一日建國佳節 憲法發布五十年에 當하와 恩赦의詔書를 下하압시엿는데 다시同日貴族院에서 記念式典에際하야 秩父御名代宮殿下를 御差遣하압시와 左와如히 優渥하압신 勅語를 下賜하압시사 我國立憲政治에對한 明鑑의 聖勅을 垂하압시엿다 貴族院議員 衆議院議員 其他參列者一同은 深淵한 聖慮에 다만 恐懼感激하엿다

勅語

朕惟컨댄 皇祖考의大憲을 制定하야 勵精治를 圖하시사 民福을 增進케하고 國運을 興隆케하야 玆에五十年에及하엿다 今有의 時局에際會하야 朕忠良한 臣民이 맛당이 憲章을 率遵하야 至公無私 오직國家를 念하야 擧國一體 億兆一心으로 新히할氣運을 振興하고 日로進할 事勢를振作하야 朕으로하여곰 皇祖考不顯에 遺猷를對揚하야 써 不承의美를 濟함을 得하게하라

首相祝辭

【東京電話同盟】憲法發布五十年紀賀式典에잇서서 近衛首相의祝辭는 左와如하다

大日本帝國憲法을 發布한지 玆에 五十年 今日紀元佳節을期하야 其紀賀式典을擧行함에當하야 惶悚하압시게도 御名代秩父宮殿下의台臨을 辱케하와 特히優渥한 勅語를 賜하압신 聖旨宏遠 恐懼感激 不勝한다 恭惟하건댄 明治天皇大憲을 欽定하사 國의本義를 明徵케하야써 臣民翼贊의道를 廣히하압시와 國家의基礎益益鞏固하게되고 臣民의 慶福이 이때문에 增進된 今日 擧國의理想을 顯揚할 實力이 內에充實하고 東亞永遠의 平和를 確立할 局面이外로 展開되엿다 臣等은 憲章奉遵의 途를 愆치안코 聖旨를奉體하야 各各其職司를 恪守하고 責務에 淬勉하야 自彊不息할것이다 光輝잇는憲法發布五十年의 式典에際하야 삼가 陛下의 聖壽無窮을 奉祝하고 아울러國運의 隆昌을祈하야 瀚然의 賀忱을 드림으로써 祝詞로한다

昭和十三年二月十一日

內閣總理大臣公爵 近衛文麿

告諭、訓令과함께 總督訓示各道에通達

憲法發布五十周年記念日에 際하야 內閣總理大臣의 告諭及內閣訓令이 正式發表되엿다는바 十二日內閣으로부터 總督府에通達되엿스므로 總督府에서는 卽時이를各道에 移牒하는同時에 紀元節當日 朝鮮神宮大前에서 열린 總督府主催式典에 南總督이 官民에게 衷한 訓示를 傳하야 官民一致 時艱克服에 邁進하기를 要望하엿다

英米佛個別的 對日建艦通報要求事情 今後推移極注目

【東京電話同盟】英、米、佛三國의 建艦通告에關한 帝國政府의 回答은 드듸어來十二日에 手交하기로되엿는데 右三國政府의對日通牒問題를 圍繞하고 英米佛三國政府는 極東問題에 關하야 반드시 共同動作을 하게는되지 못하게된것이 判明되엿스므로 帝國政府는 今後다시 三國의動向을注視하게되엿다 卽我有力한側에達한情報를 綜合하면 今回對日通牒을發함에잇서 今年一月二日米國海軍作戰課長인거슴大佐는 英京倫敦에서 英佛兩國政府의作戰關係者와 極秘裡에會談을 遂한結果

一、建艦通報에 關한對日通牒을 發할것

一、萬若日本政府가 右通報를拒絶하는境遇는倫敦條約의에스카레-터 條項을 發動하야 主力艦制限의 限度로 四萬三千噸 十六吋砲塔載라고잇는것을 四萬五千噸 十八吋砲塔載로 上할것

에 意見一致를보앗스므로 英國政府는 이通牒方法을 三國政府의 共同通牒의 形式을 取하려고 熱烈히 主張하엿스나 米國政府는 自國內의 輿論에 鑑하야 積極的으로 極東問題에 進出이 不利할것을 認定하고 反對意見을 吐露、佛蘭西도 또支那問題로 帝國政府의 對佛感情을 刺激할것을 念慮하고 또英佛空軍協定과 海軍協定으로부터 極東關係를 除外한 事情等으로 共同通牒에 反對하엿나 그리하야 英政府의 對日共同通牒의 意圖는全혀水泡에 歸하지안흘수업게되엿고 各國이各別個의 形式으로 通牒을發하기로 되엿는데 今後帝國政府로부터 建艦通報의回答에接한 境遇에는 益益此等諸國의 國內事情이 表面化할것으로 觀測되어 그推移는 重視된다

四川軍閥과 蔣系對立依然激化

【上海十一日發同盟】劉湘의怪死와 張群의 主席任命에伴하는四川軍閥의 反中央運動은 依然熾烈하야 中央에서는 盛히安協成立을 放送하고잇다 重慶에서온 報道에 依하면 四川軍閥은 中央에 對하야 左의通電을 發하야「四川은 張群을欲지안코 境遇에 依해서는 實力으로써 中央에 抵抗할려이다」라는 態度를 示한다고도傳한다 中央의意量을體하고 成都에 赴한 交通部長兪作字及蔣介石代表賀國光은四川省財政廳長劉航琛과함께 九日飛行機로重慶에歸還하야 十日重慶에서密議를거듭하고잇는데 中央은張群을 四川全省保安司令에 任命하야張群의 地位를 一層强化하고 中央의 勢力扶植에 努力하리라고 觀測되는바 多大한注目을끌고잇다

濮陽縣城을占據

【彰德十一日發同盟】九日朝濮陽을 出發한 坂西、安田、長山의 各部隊는 勇躍進擊을 繼續하야 同日午後三時 濮陽縣城外에達하야 城內에 據한千五百의敵과交戰二時間後 이를 擊退하고 午後五時五十五分城壁의 一角을占據하고 卽時城內掃蕩을 終了하고 堂堂히 入城하엿다 敵은死體八十을 남기고 潰走하얏는데 我方의 損害는 負傷兵二名뿐이다

小蚌埠逆襲敵擊退

【鳳陽十一日發同盟】十日夜敵千五百이 月明을利用하야 突然小蚌埠에 逆襲하여왓스나 我佐伯部隊는 猛然이를邀擊하야 激戰六時間後 十一日早朝이를 擊退하엿다 敵의戰死는百餘 我方損害는輕微하다

武昌空襲

【上海十一日發同盟】須田少佐가 引率한 海軍空爆部隊는 十一日午後二時頃 武昌을 空襲하야 軍官學校를 爆擊紛碎하엿다

道警部、警部補 考試合格者發表

朝鮮道警部及警部補考試試驗合格者는 十二日午前總督府에서 左와如히 發表하얏는데 合格者九十三名中朝鮮人이十二人 內地人八十一人으로 朝鮮人八對一이다

道警部及道警部補考試合格者 尹明運(京畿)稻生國嗣(平南)岩見增雄(平北)林新三郞(京畿)白道甲(慶北)早崎一枝(江原)馬場彌之助(咸北)西山繁二(全南)西岡淸藏(平北)新納國藏(江原)朴有鎭(忠南)堀江利吉(平北)星野佐市(江原)土井榮助(忠北)富重實一(全北)德增元一(慶南)渡邊敏郞文(黃海)張子實(慶南)李天實(江原)李昌(咸南)大塚幸人(全北)大塚勝俊(平南)岡本豊(平北)紙本寬藏(江原)吉武勝德(京畿)吉野脩(全北)米丸一(慶南)橫山春一(慶南)吉村林(黃海)吉田淸吉(平北)高田茂雄(忠北)玉浦芳次郞(慶南)宇見唯一郞(咸南)田村芳男(咸北)竹本豐(咸北)宋斗漢(京畿)梁谷吉三(咸北)中川實次(京畿)中村芳德(慶北)長瀨一助(平南)內藤良一(平北)村瀨泰(全北)村岡明(咸北)上田利實(慶北)牛丸貴吉(平北)內田淸(江原)野町元義(咸北)工藤義政(黃海)山本五郞八(全南)山崎虎雄(平北)山口壽太郞(咸南)山田貞市(咸南)山田喜代次(咸南)松田三七彥(忠南)古屋傳平(忠南)藤野久平(平北)藤井巖(平南)福田喜代次(江原)福成文治(江原)福田征一(咸南)後藤辛男(京畿)小石儁(忠北)兒島光雄(忠南)小林忠治(平北)小西正來(江原)小池千代一(咸北)小林政太郞(咸北)榎園靜美(京畿)鄭成植(慶南)有馬滑者(京畿)阿部秋澤(全北)安藤寶一(全南)靑木義雄(江原)櫻井文治(全南)坂田榮(平南)吉良虎雄(京畿)金原(忠北)金光烈(慶北)吉元浦(平南)金原奎(平南)木內恒男(江原)金在坤(咸南)水江松男(全南)宮本龍(慶南)宮崎弘七(平南)三好惠治(平北)三澤義治(咸北)淸水吉雄(慶北)徐水出(慶北)白鄕宏一(黃海)志摩津邦生(咸北)平宮正孝(全北)

十二日倫敦의 國際反日大會 反日的長文電報殺到

【倫敦十一日發同盟】國際聯盟協會에서 主催하는 反日國際大會는 明十二日倫敦로베르가든 에서 開催하고 日貨보이코트及 對支援助를 議題로 氣勢를올리게되엿다 開催를앞두고 大會에는支那를爲始하야 各國의 反日家로부터 激勵電報가 輻輳하고잇다 特히 蔣介石은 十一日左와如한 電報를보내여「最後의一兵」論을 反復하엿다 日本은 法과秩序와 權利를破壞하고 世界를 野蠻時代에로 逆行케한다 支那는 最後의 一兵、最後의 寸地에 이르기까지 防禦를 繼續할것이다 反日國際大會가 日本軍의行動을阻止하는手段을 講究하리라는 報道는 支那에 새로운 戰鬪力을與하고 또 支那가 終局에는 自己의權利를 擁護할수잇다는 새로운 希望을與하엿다 그리고 宋子文도 同樣으로 日本에對한 集團的行動을 要望하는 長文의電報를 보내엿는데 米國에서는 前國務長官헨리·스팀손氏가「各國은 日本과의 通商關係를 非公式으로斷絕하라」는激勵電報를 보낸것이 注目된다

强力한指導機關으로 日支經濟協議會設置
會長엔王克敏氏、副會長엔平生氏?
日支經濟뿔럭促成

【北京十一日發同盟】中華民國臨時政府는 日支提携經濟協力의 最高指導機關으로 日支經濟協議會를 北京에 常設하야 近近設立할 日本側의 北京産業開發株式會社 其他北支産業資源開發會社의 事業指導에 當케하기로 되엿다 同協議會는 會長副會長各一名下에 日支雙方으로부터 同數의委員若干名을 擧하야 各委員으로써 交通 通信 電氣 工業 其他産業資源部門別로 各其産業開發指導를 擔當케할터인데 會長에는 行政委員長王克敏氏가 就任하기로 決定되고 副會長에는 日本側으로부터 北支派遣軍最高顧問에 物色되여잇는元文相 平生釟三郞氏의 就任을 要望하고잇다 平生氏의 受諾이 確定되면 아마 二月末까지에 同協議會는 成立될方針이다 同協議會의 實現은 日滿經濟共同委員會와同樣으로 今後 日支經濟뿔럭確立에 多大한 貢獻을하게되리라고期待된다

010601

時事解說
北支開發會社

◇ 對支經濟工作의 國策會社로 北支에 北支産業開發會社 中支에 中支復興會社를 設立할것에對해서는 이미政府에서方針을 決定하고 目下兩會社設立에伴하는 法案及 豫算案等等을 關係各廳間에서 立案하야 不遠議會에 提出하게되엿다。

더 闡明한 바에依하면 北支産業開發會社는 一、資本金三億元程度로 北支産業開發을 目的하는 國策會社로하되 其傘下에 交通 通信 電氣 鑛業 港灣業等五部門의 企業會社를 設立하고 中支復興會社는 資本金 一億元으로 戰禍를 蒙한地域에잇서서 大衆生活에 必要한 諸事業即電信 電話 電力 瓦斯 水道等의企業을 그傘下에 統括하리라한다。

◇ 北支開發에잇서 먼저 必要한 金融機構의確立과 通貨制度改正이다。幣制는 이미 新聞에 報道된바와 가티 北支의 新發券中央銀行으로 中國聯合準備銀行(資本金五千萬圓內拂込 二千五百萬圓)을 開하는데 臨時政府와 日本側으로부터 各其半分을出資하기로하되 日本側은 鮮銀正金 興業으로부터 出資하고 鮮銀은 日本側出資의 半分을 擔當하기로 決定되엿다한다。關稅問題도 中華臨時政府로부터 北支關稅를 接受하야 從來의 排日的關稅를 撤廢하게 되엿다。

◇ 다음에 問題는 統制會社와 自由企業의 關係이다。北支는 地域이 尨大하고 開發을要할 資源이 尨大할뿐아니라 其開發에 必須要件인 交通 運輸 港灣 電力 電信 水利等 巨大한 資本과 技術을 要하는企業이 얼마든지 잇다。勿論 國策上 必要한 鐵 石炭等 重工業方面과 其他 開發에 先行要件이되는 諸企業은 國策會社가 이에當하게 될것이나 其他 輕工業과 國策會社所管以外의 方面에 잇서서는 自由企業이 이에當하게 되지안흘가 思惟된다。

建艦에對한回答 十二日夕刻手交 同時에帝國態度도聲明

【東京電話同盟】英 米 佛三國의 建艦通報要請에對한 帝國政府의 回答文案은 十日午後海軍外務兩省에서 完全意見一致되여 十一日回答公文을 完成하얏으로 支障이업는限 十二日 院內에서 臨時閣議를開하고 右回答文案을 附議決定하야 同日夕刻廣田外相은 外務省에 時日 英米佛 三國大使의 來訪을 求하야 各其回答文을 手交하기로되엿는데 外務當局에서는 右回答文發表와 同時에 通日三國政府가 提示한通報要求에 公文을 公布하고 右에關한 聲明을發表하야 帝國政府의 軍縮及建艦問題에 對한 公正한 態度를闡明하야 斷乎한決意를 表示할터이다

對三國回答案 閣議에서正式承認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二日午後六時五十分부터 院內에서臨時閣議를開하고 海軍建艦計畫의 通報를要求한데 對한 回答文에對하야 廣田外相으로부터 文案을提示하고 說解를求하야全閣僚 이를承認하고다시 支那事變特別稅 法案提出을決定한다음 同一時散會하엿다 廣田外相은 同日午後三時宮中에 參內하야 內奏한後 이를 三國駐日大使에手交하기로되엿다

故島田少佐에敍位

客日前에 狹心症으로 急逝한 朝鮮軍報道班員 故島田少佐에對하야 다음과 가튼 賜叫가잇섯다한다

從六位勳五等 少佐 島田 耕穗

敍正六位(特旨로써位一級을進함)

三土元鐵道大臣에 前官禮遇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十一日 紀元의佳節에 當하야 元鐵道大臣 三土忠造氏에對하야 特히 前官禮遇를 賜하는旨의 御沙汰가 계시압섯다

正三位勳一等 三土 忠造

特히前官禮遇를賜함

辭令

總督府事務官 藤本 修三

命總督官房會計課長

總督官房會計課長 蒲井 忠平

免同

本社辭令

(二月十二日附)

事業部長 方 在 胤

依願解任

人事·集會

▲金子殖銀理事(東京駐在) 株主總會出席次十二日午後一時三十五分着『아까쓰기』로入京

▲文錫斗氏 今月十日 鎭海邑自宅에서內艱

公眼科 京城府鐘路町四街里 電話光三三九八 醫學博士 公炳禹

八面鋒

◇ 京城帝大醫科는 벌써 入學願書를 마감햇는데 志願者가 收容人員의 約五倍라고。

◇ 高等學校부터는 專門的 學問을 배우는것이니까 四、五倍의 競爭率이 잇는것은 當然할것。

◇ 어중이、떠중이 다 大學을 마치면 本人의 成功도 어렵거니와、社會의 收容도 困難。

◇ 그러나 中等校 志願者가 收容人員의 五倍、十倍나 되어서는 큰 問題。

◇ 高等普通의 知識을 배울 機會도 주지 못한다는것은 社會의 發展上 重大支障。

◇ 況 初等學校 入學에 二倍三倍의 志願者가 잇서試驗을 본다는것은 世界서 드지못할 現象。

◇ 學校擴充될때까지 二部制를 實施한다니 多少 入學難은 緩和될 모양이나、

◇ 이러것들은 午前 午後로나 누어 登校케하니 習慣을 기르는點으로나 健康上으로나不滿足하기 比할바업다。

不再錄號外發行

本社는 今晚滿洲共産黨事件으로 不再錄號外를 發行하엿습니다

メンソレータム
멘소-레-탐

世界之家庭藥

解凍後는
싹트는時節이외다
얼어터진대는
メンソレータム로
눈보다도더곱게
治癒됩니다

모든傷處에 痛症에
熱과充血을 업새서
藥效의吸收를 速하게
하는 メンソレータム

特効
살거칠 火傷 神經痛
얼어터진대 코감기 痔疾
얼어터진자리 頭痛 化粧下
外傷 齒痛 面刀後

價 二十五錢 四十五錢 九十錢 一圓八十錢

皇軍の慰問袋に メンソレータム

日本メンソレータム本舖

商銀一千圓事件犯人 假檢事神谷今日押來
카메라의總攻擊에微笑하는憔悴한얼굴
下車即時로本町署에留置

지난구일밤 하르빈(哈爾濱)에서 본정서원에게 붓잡혀 경성으로오는 가검사 신곡오랑(神谷五郞)(二〇)을 만나려고 십이일 오후령시 조금지나 신막역(新幕驛)에서 경의선(京義線) 북행열차를 버리고 위기일발급행『노조미』에뛰어오르니 이열차 삼등차안에잇는 김경부보(金警部補)의일행을 꼿 만날수잇섯다 김경부보외 한명의 형사가 문제의 걸물(傑物)가검사를 중간에 두고 긴장한얼굴을하고잇다가기자를보고 반색을한다 하르빈에서 범인을체포하엿슬순간에 표정이 이와가텃스리라고 생각되는 심각한 미소(微笑)다 기자는이에 목례를하고 신곡오랑!흉[?]십삼일간 악운이다하야 북만하르빈에서 구일밤드디어 붓잡히게 된이도이미 나흘이되엿다 그는재빗『스코취』양복에 흐트러진머리 인상쥐이오 동강적(桐明的) 그큰눈도 망채를입엇고 초췌(憔悴)한얼굴에 두어깨는 축느러저잇다 『여-신곡군 고단하지안흔가』

『피게치안습니다 천만에안니다』 여기서 입석경관이 『중지(中止)!』라 창밧을보니 입춘(立春)고개를넘은 따뜻한 봄바람결변(縉雲)의 이북미례서 한겨울동안의 지리한꿈을 막깨려고 살며시살랑 고개를들고잇는 보리싹을 쏘다듣고 잇는듯 부자유의몸이되여 유리한겹박게 잇는들은 보는지 안보는지 신곡의심경은 말업서 알수업스되 주상가튼 호령으로 동일은행(東一銀行) 지배인과 상은(商銀) 안부(安部)씨의 가슴을 서늘케하든 그의얼굴은 어디로사라저버렷는지 조곰도 엿볼수업다

범인신곡을 싸고도는 일행의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가운데 개성(開城)을지나 오후한시반 정각두시 삼십삼분 경성역에 하차하자 본정서원들의 개가는 자못노팟스며 일패도지(一敗塗地)한 신곡이 제법유유히 각신문사사진반의 『푸랫슈』를밧고 엄중한경계리에본서로 호송되엿다

(사진은 경성역에나린 범인신곡)

戰爭文學者 파렐氏朝鮮訪問

전쟁문학(戰爭文學)으로 널리 세계에 이름이 알려워진 불란서문호『크로-드·파렐』씨는 방금 일본방문중 조선경유로 만주국도 시찰케되여 오는십오일 오전귀시부산(釜山)에도착하야동칠시 삼십분부산발『노조미』로 봉천(奉天)에 향하기로 되엿다 귀로에도 조선경유키로되여 이십삼일오후령시 사십삼분경성을출발『히까리』로 조선을파 부산경유내지로직행한다

主任이가엽서서 千圓뭉치하나만

護送中의 犯人과 一問一答

호송중의 범인에대하야 기자는기회를엿보아 차중에서 대략 아래와가튼 문답을할수잇섯다

문 동일은행에서 상업은행에갈때 자동차로갓느냐

답 본정통으로 거러갓는데 한번실패한뒤라 도하고시픈생각이업다가 동파출소아페오니발작적으로 드러가고시픈생각이낫다

문 구천원중에서 왜천원만가저왓느냐

답 더가저오기도어려웟스나 그곳주임이가엽서서고만두엇다

문 잡힐때에 감상은 어떠하엿느냐

답 나쁜짓을하고 그대로 색일수업다는것을 절실히느꼇다

문 그대는계모슬하에서 자랏다는데 자당은언제 작고하섯나

답 어머니는 내가철들기전에아버지에게 버림을 바덧다한다

문 범행후 여러날 서울에잇슨것은 무슨 이유냐

답 신문을보니 여간크게 보도를하지안햇스므로 떠날수업는것가티 생각되엿다

경성역에서 당신문사에게 명함을 내슬때 손이마뗄려서 꼿잡히는줄알엇다

(사진은 호송차중의범인)

逮捕狀況

본정서에서 구일대판(大阪)으

론부터 범인이 하르빈에잇다는 급보를바든것은 오후엿시반이다 여의도(汝矣島)에서 비행기떠날시간을보니 이십분밧게 남지안햇다 곳비행장에 이십분만늦게 떠나게하여달라고 교섭한후 자동차로 달려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날저녁 여섯시신경(新京)에도착 여기서 기차를가려타고 하르빈에 도착한것은 밤열시쯤 곳만주국 경관다섯명의 응원을 어더그곳『모스트카야』거리 명고옥(名古屋)『호텔』에서 범인을 손쉽게 체포하얏다 경관대가 들입하자 범인은 아무저항도하지안코 조용히수갑을바드며 소리질러 울엇다한다

逃走經路

이월사일 오후네시십오분 경성역에서 본정서 당천(唐川)순사를속히고『아까쯔끼』에 오른범인은 부산(釜山)까지갈동기가업서서 대구(大邱)에서 일단하차하고 되도라그길로 봉천(奉天)까지가서 이틀동안을 묵은다음 다시 하르빈에가서 잇다가 붓잡힌것이다 대구에서 범인은 우선 봉천으로 향하엿는데 어동경찰의 검문이 심하얏스며 이경찰관들이 봉천까지가는표를보앗스므로 다시 하르빈까지간것인데 그아프로 또어디까지 가겟다는 생각은 하지못하얏다고

체포당시에는 회중에불과 오륙원밧게업는 가엽슨신세엿섯다 한다

金警部補談

범인은 붓잡힌고 한다 저항을안하엿슬뿐만아니라작고 울고만잇섯다 그는 어렷슬때부터 가정적으로 여간 불행하지안코 현재는 여간 자기죄를 뉘우치고 잇지안타 그러나범행을한 이면은 동정할점도만타고 생각한다

"指紋"의偉力

도망한 범죄자의 뒤를쏫는위대한과학의힘! 수일전에 만주국길림성(吉林省)으로부터 경기도형사과(刑事課)에 지문조회(指紋照會)가 왓든데 그지문을대조해보면과 그것은 소화팔년십이월이십삼일에 상해죄로수배중인 경북안동군일직면구천리(安東郡一直面九川里) 강해영(姜海永)(二)의지문으로 판명되엿다한다 그래서 곳길림성으로 이결과를 회답하엿다한다

恩赦의減刑出獄者 大略三百三十名
昭和九年當時六百名의半數
正確한集計는數日後에發表

기원절(紀元節)이며 헌법발포오십주년(憲法發布五十周年)기념일에 칙령(勅令)을 발포하며대조(大詔)를환발하야 전국에은사의 특전을 실시함에 의하야조선에도 이은전의망영을 입은사람이 감형(減刑)복권(復權)을합하야 약구만오천명에 달하는사실은 이미보도한바로써 주지하는바이니와 이번 은사령에의하야 감형출옥될사람의 총수는방금 총독부 법무국에서 각검사국과 형무소를 독려하야수짜를집게하는중이므로 빨러도 오는 십사일이아니면 정확한것은 알기어렵올모양이나 대게 조사한바에 의하면 십일일밤 열두시까지 감형으로 만기되어 철창을버서난 사람은 전조선십사개형무소삼개소년형무소 십일개형무지소등 합계 이십팔개소감옥의 기결수(旣決囚)일만칠천여명중에서약삼백이십명에 불과하리라한즉소화구년은 사령당시 즉일출옥자 약육백명에 비하면 약반수에 불과할모양이다

소화구년은사령당시보다 그수짜집게가 늣게되는까닭은 소화구년은사령당시는 황태자전하탄생에 의한 은전이엇스므로 전례에 의하야 미리미리 용의주도한 준비를 완전히 마추고 잇섯는데 오직 칙령발포만 기대렷기때문에 즉시 그은전바든자의 수짜를 발표할수가잇섯스나 이번에는 전례도업섯슬뿐아니라 은사 주청의날짜가 촉박하얏스며 그범위를또한 이바하야 결정하얏스므로 미리 완전한 준비까지에는 미처이르지못하얏스므로 총독부에 보고가오기가 늣게됨에따러 그수짜집게도 역시 늣게되는것이다

復權은二萬千名
資格回復은七萬三千

은사감형에의하야 출옥될사람에대한것은 대개별항과 갓거니와 이번에 은전입은사람 약구만오천명중에 징역금고등의형을받은 전과자로 복권될사람은약이만천명에 달할모양이오 벌금과료 징계처분등의 처벌에의하야 그자격과권리를 상실한사람으로서 이번은전에의하야 그권리를회복하며 자격을 회복하는 사람이 약칠만삼천여명에달하리라고한다

鐵道局官舍 窃盜逮捕

시내한강통(漢江通)십삼번지철도국관사 의제료(義濟寮)에서는 작년시월부터 지금까지 수차금시계현금등을 도난당하엿다는 신고를밧고 소관용산서에서는 내부사정을 잘아는자의 소위인것으로 단정하고 이래범인을 엄탐중이든바 십이일오전한시경에 죽림정(竹林町)이번지의 여관대흥여관(大興旅館)에서 취침중인 충남(忠南)출생 주소부정의 김대관(金大觀)(二〇)이란자를 용산서형사가 체포하여취조한결과 진범인으로 판명되엿다한다 김대관(金大觀)은 이미전과삼범의 거물로 작년시월부터 한강통(漢江通) 의제료(義濟寮)에고용되여 심부름을하여오는자로써

登場한試驗地獄
初舞臺는京城師範!
受驗第一日 百名募集에六百七十七名이應試
當落에조바심치는學父兄들

벌써 입춘(立春)도지나 어제 오늘은 제법날세가 봄철로드러가서 따스한데 해마다 봄이오면마음이함께 그따뜻한 품안에 서행복스러워야 할것인데 입설스러운 입학시험(入學試驗)이라는난편이 닥처와서 도리어 어린학동들의 기분을 우울하게하며학부형들의 마음을 안타까웁게하고잇다 금년에도 벌써 십이일부터 시내황금정(黃金町)륙정목에잇는 경성사범학교에서 행복스러운 봄을등지고 우울한입학시험이 금년드러 그첫막을열엇다 경성사범학교 보통과생도 백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육백칠십칠명이나 몰려드러 이날이 그필기시험 첫날이다 한학동이 일곱사람가량이나 의여내여야이 하는학동들의 경쟁이 얼마나격렬하며 데리고와서 학교들에서 기다리고잇는 그부형들의 조바심이얼마나하랴! 십이일부터 시험은십오일까지 나흘동안이나계속되여 학동신체구들의난관을 돌파하고 들어갈터인데 어중에서도 오백칠십칠명은 낙제(落第)를 면치못할것이다◇ 어학교의 부속보통학교 에서는 남자사십명 여자 이십명을 뽑는데 오는 십칠일이고 현재까지벌써 이백육십명의 지원자가 잇다고한다 그리고 연습과(演習科)는 이백명을 뽑는데 오는 이달말일이 학교에서 접수를마감하는날이라고한다◇

또 경성여자사범학교에서도 얼마전 그지원접수를 마감하엿는데 금년에 심상과(尋常科)졸업 백명뽑는데 지원자가 팔백명이 나왓고 연습과(演習科) 강습과는 선생이 만히모자라서 금년에는 공주(公州)에 학교가신설되여 오백명이나 뽑는데 지원자는 약칠백명이들어와서비교적 경쟁률이적다고하며 시험날짜는 오는이십일부터 이십팔일이라고한다 (사진은 경성사범학교 교정에모힌 수험생들의부형)

學童의探偵眼
西洋婦人의핸드빽奪取犯을 洞民과協力하야逮捕

보통학교아동의 지혜로 『핸드빽』탈취범인이 손쉽게 체포된이야기—십일일오후두시사십분쯤하야 부내로고산정(老姑山町)사십번지 화광보통학교오학년 리기선(李祀善)(十一)군이죽첨정(竹添町)삼정목부근을지나는중 어떤괴한하나이 자전거를탄 양부인의『핸드빽』을 노리고잇스므로 수상히 생각하고 따러가보즉 그괴한은 별안간『핸드빽』을 빼서가지고 도망하므로 그는 도적이야 소리를치며 합동정(蛤洞町)이십팔번지압까지쪼처가서 그소리를듯고 쪼처나온 미근정(渼芹町)백번지 서촌충남(西村忠男)(二)외세명과 소관서대문서원과 협력하야 일대격투끗테 그를 체포하엿다 이괴한은도화정(桃花町)사번지의삼십팔호 강도전과일범 리정수(李貞秀)(二)로서 마다는곳에 쪼겨드러가자 그는 차칼을빼어들고 대항하엿스므로 그를취조중인데 이외에도 여죄가만흘것갓다한다

穀物協會에서 海軍機一機獻納

조선곡물협회간사장 재등구태랑(齋藤久太郞)씨는 십일일오동부에 동향(東鄕)해군어용괘를 방문하고 기원절을 마지하야 그협회원의 애국의결정으로 해군기 일기를 헌납코저 칠만오천원의 헌납수속을하엿다

毒感流行으로 得勢한漢藥房

【仁川】인천지방은 입춘(立春)이지나고도 기온이수일동안 강하(降下)하여 유행감기가 창궐하여 부내각 한약방에는 매일 페도산, 쌍화탕을 지러온손이칠팔십명식이나된다하며 골목마다약다리는 냄새가코를 찌르는현상인데 그반면에 병원 한약방에서는 눈코를수주만치 번창하다한다

赤十字救護班에 外人慰問金寄贈

금번 사변에잇서 일본적십자사(日本赤十字社)에서 다수의 구호반을 편성파견하여 피아의 구전상병자구호에 힘쓰고 잇는데 이들의 배의의전사를 위문코자 조선각지의 외국인으로부터 적십자 본사로 위문금을 보내여 오는사람이 만흔데 금번다시경성 재주의『미스·에-방크-』『도마-스홉스·동부인』『미스·루비-리』『미세스·동부인』은 총독부외사과를 통하여 위문금을 기증하여왓스므로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에서는 직시동경본사에 전송(轉送)전달하기를 의뢰하엿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의 勢力은조금衰退하엿스나 역시蒙古부터 滿洲 朝鮮을거처 本州에퍼지고 滿洲低氣壓은 滿洲中部와 日本海에잇고滿洲 朝鮮은개이고 太平洋方面도 날세가조코日本海方面은 흐리며 東北地方은處所에 따러降雪이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밤과 내일은개이며 京畿道全道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五度一
同最低 零下六度五
今朝最低 零下六度七
今日正午 一度四

스포-츠欄

올림픽東京大會 米國은參加

【큐육十一日發同盟】『카이로』의 國際올림픽委員總會를 압두고올림픽東京大會에 對한各國의 態度는 極히注目되여잇는이때에 十一日朝 突然 濠洲의『시드니』體育協會名譽主事에 對하야 國際電話로 米國은 올림픽東京大會에參加를中止하라는 勸告를 하여왓는데 이에對하야同協會名譽主事는 目下東京大會에 不參加하다는것은 생각치도안헛다 라고『시드니』體育協會의 勸告를 拒絶하야 東京大會에 參加할意思가잇슴을 明白히하엿다

日本最初의 室內스피-드競技

第二回明大對立敎氷上하키戰은 十日午後六時五十分부터 芝浦스케-트場에서行한바 十一對四로明大가敗하엿는데 番外模範競技로明大스피-드選手 崔龍振張祐植等을 비롯한全員이日本最初의室內스피-드競技를擧行하엿다

女子四百米繼泳 世界新記錄作成

【同盟코펜하-겡九日發】九日에『코펜하-겐』에서行한 水泳大會에서 丁抹의 女子팀은 四百米自由形릴레-에 일지기 和蘭팀이 作成하엿든 四分三十二秒八의 世界記錄을 二十三秒一이나短縮하야 四分九秒七의 世界新記錄을 樹立하엿다

講武館記念式

朝鮮講武館에서는 同館創立十六年記念式(新築道場移轉四週年)을 兼하야服習授與式等을 十三日午後七時半부터同道場에서 擧行할터이라한다

龍江公普校 慰問金獻納

부내 룡강공보(龍江公普)에서는 직원아동이 애국일에 매월을 모아서 쌀고 구리저금의세배돈을 모하서 십일일 영기(永崎)교장이총독부 해군어용괘를 차저서 해군헌금으로 헌납하엿다

마루이찌꾼이 行人을襲擊

부내현저정(峴底町) 임봉수(任鳳洙)(二)와주소부정 김한수(金漢洙)(二)두명은 십일일오후세시부내서소문정(西小門町)재판소뒤에서『마루이찌』도박판을 벌리고 도박군을 속이하다가 때마침그곳을지나가든 황금정사정목 오십번지 최영기(崔泳紀)가 돈십원자리를 가지고잇는것을보고 임봉수는 별안간 최의손으로부터 돈을빼서가지고 도망하다가

[illegible] 이제 [illegible] 그서에서[illegible] [illegible]중이라한다

列車自動車衝突 外人三名重輕傷
昨夜城津驛附近慘事

십일일오후열시삼십분에 청진(淸津)을떠나 성진(城津)으로 가든 제오백육십열차가 농성장과성진(城津)사이의 욱정(旭町)제이정목건널목에 이르럿슬때에 성진자동차상회운전수 김종선(金鍾善)(二)이운전하는 세명 부인선교사 제니·비로프(二)의 세명찬『엠·지·마키노』『이승재』『카나다』를태워가지고가든 함북제일천오십오호 자동차와바치어 자동차는 전면이박살부서지고 철로밧그로 뛰여나가는동시에 운전수와 승객은 모두중경상을입엇다 그근처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생명에는 상관업슬모양이라한다

地方職員兼務

총독부에서는 최근의 중앙지방의사무 격증에비추여 종래도 비지변의 직원은 지방대우직원령에의하야 국비의 사무를겸수업던것을 확정의사무를 지정하야지방비 직원이라도 국비사무를담당할수잇도록 되여 십이일그뜻을 각도에통첩하엿다

京城서는二名 出獄

오늘부터이며 [illegible] 행중이다

헌법발포오십주년기념으로 십일일 환발된 은사령에따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인 한명과 보안법위반죄인한명 모두 두명이 감형의 은전을 입게되고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는 해당한 죄인이업서서 은전을 입은 죄인은 한명도 업섯다한다

滿洲로시집가는 朝鮮農牛

만주로 건너가는 대량의이민과가치 충청스러운가축도 동반하야 만주벌로시집가게된다 만주에농사지을사람은 만히건너가도 땅을갈고갈은데 이를경작하기에는 여간한사람의힘으로는소도 부족하야 소가대단히만히필요하므로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회사에서는 이민용의 농우를 알선하여 주기로 총독부에 의뢰하엿다 총독부에서는 그간 각도에 조회하야 이번 일천칠백오십일두를 오는이월 하순부터 사월상순까지보내기로 하엿는데 그저 소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보낼수는업고 아프로 만주에서 대대손손 소를만히 번식시킬 조건미테건장한 암소일천칠백칠십삼두에 씨바들수놈으로 칠십팔두를 한처 보내기로되엿다 대개는경기 이북에서 이백두내외식가저간다

鴨綠江、六合兩社를 王子製紙에合倂
合同實現은時期問題

【新義州】대륙정책의 일원회를 목표로 신의주왕자제지회사(王子製紙會社)에서는 안동현륙도구(安東縣六道溝)에잇는 압록강제지회사(鴨綠江製紙)와 륙합제지창(六合製紙廠)을 합병하야 준왕자제로만들려고 목하계획중인데 원래 압록강제지회사는 왕자제지와 대창조(大倉組)의합동출자이고 륙합제지창은 순왕자계인관계상 이번의계획은 시기문제뿐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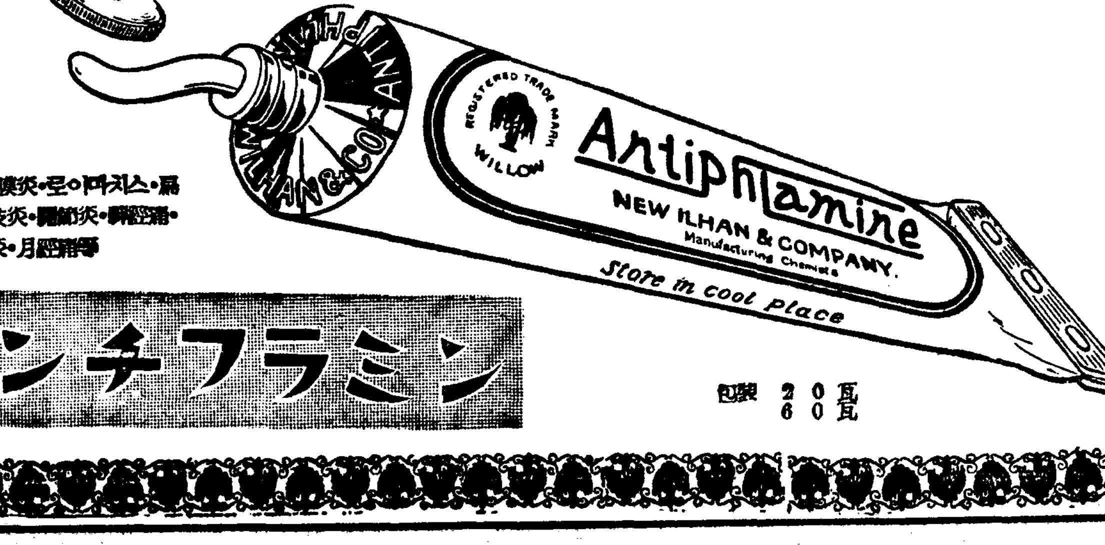
外塗內治의家庭聖藥

アンチフラミン은 歐米各國에서 醫療用으로數十年間實用하여온 外塗內治(것트로발러內治하는)藥으로서 肺炎·感冒·肩비痛·神經痛等에卓效한 成分이含有되여잇서 患部에塗布하면 迅速히組織內에滲透하여 數分間內에鎭痛·消炎·治癒等의 藥效作用을 보게됩니다。

그러므로 一般疼痛性·炎症性疾患인 肺炎·氣管支炎以外에 扁桃腺炎·關節炎·乳房炎等에도卓効가有하며 또한 婦女의 月經痛에 本劑를 下腹部에바르면 煖宮作用을 이르키여 疼痛을 停止하고月經을 順調롭게합니다。

全國各藥房에서 販賣中이오니 一家一劑常備할家庭藥으로서 自信을갓고推奬합니다

또한本劑는 患部에바를때 何等刺戟을이르키지안코 使用하기에 極히簡便하므로 各病院에서도 老幼를勿論하고널리實用합니다



適應症
肺炎·感冒·肋膜炎·루이마치스·扁桃腺炎·氣管枝炎·關節炎·神經痛·打撲傷·乳房炎·月經痛等

アンチフラミン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包裝 20瓦 60瓦

朝報案內

貸電 話有長期可 紹介不要 希望者電話光二二三九番에

求資 絕對安全 年八割 要二千圓 乞照會面談 京城公平町六六、三英方 安田

乳母 一人至急入用 京城茶屋町九二番地 李西

案內孃募集 年齡十五歲까지 履歷書携帶하고 午後一時까지 本人이來談할事 若草映畫劇場

書圖 ガタゞ讀める 大阪東成區 出版 現代社

求職案內 農村都市勿論 高普校卒業程度 文鈺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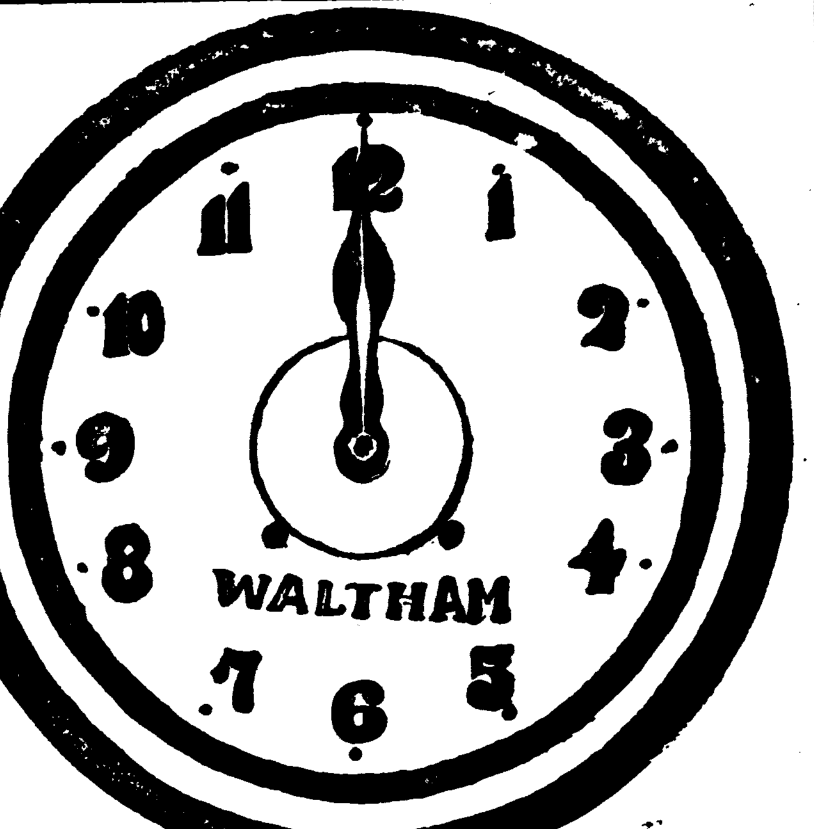
論山支局 電話開通三一番

◇堅牢優美價格低廉納品迅速
營業種目 金庫 鋼鐵製書箱 家具 一式 鑄製品修繕一切
◇特約店取次販賣店及外務員大募集
太陽金庫工業株式會社 大邱府外新岩洞 電話一五〇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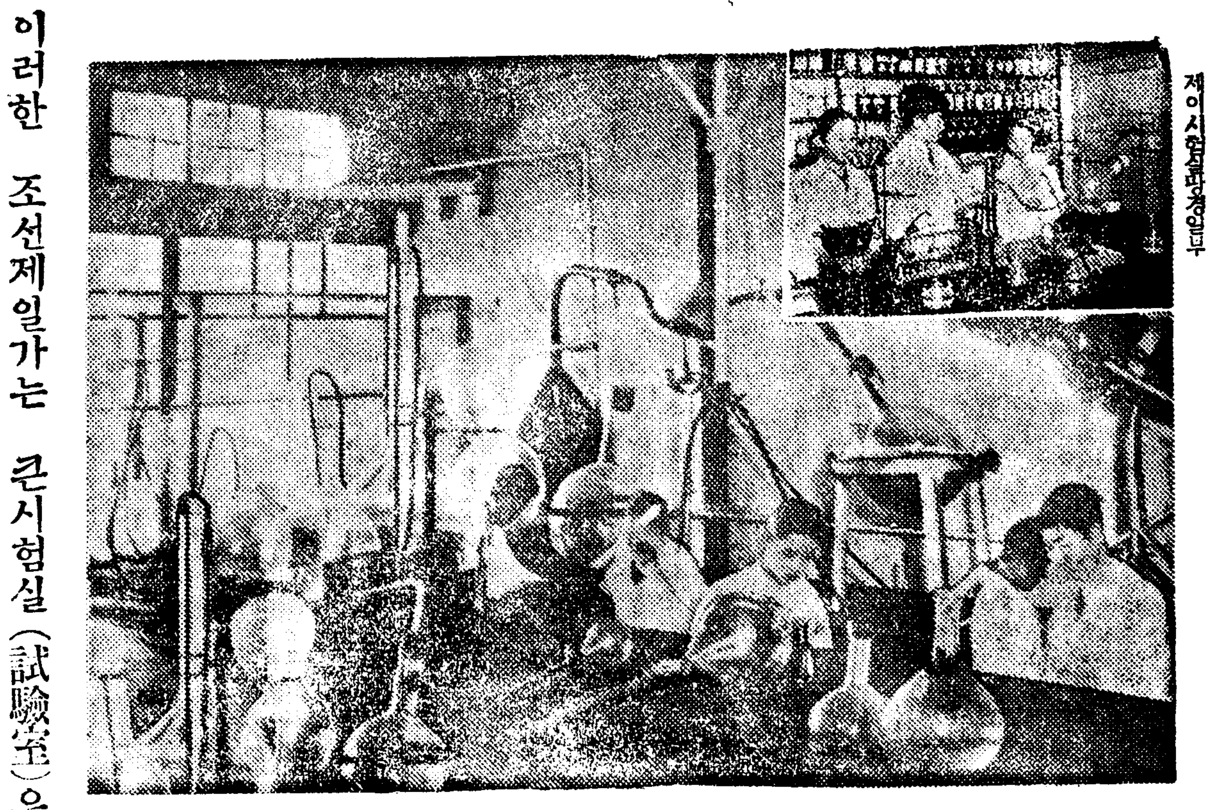
提要 藥物學講義 藥種商되는速法 再版出來(三百三十餘頁)
이한책으로合格保證、試驗答案集까지附加
定價 三、五〇 送料 三三 京城寬勳町一二二 振替京城一二一九番

國産映畫 五つ見つ子
13日封切
大每·朝日·ニュース
支那事變後方記錄映畫 陸軍省海軍省御後援
現地ルポルタージュ 上海
我等はこの映畫を 上海の戰跡に眠る 英靈の忠魂碑に捧ぐ!
同胞が我る快を胸を切々
前にひれ伏せ!
ベンガルの虎
若草劇

無料 春節毛糸編物講習會
二月十五日부터 同二十一日까지
場所 新館 四層 定員 一百名 講師 鄭一信先生
今春에各家庭에서實用되는毛糸手藝物의編法을 親切丁寧히指導敎授하오니 勿失此機하소서
講習에所用되는春節毛糸一폰드를買上하시는 분께講習券을無料로進呈하나이다
春節毛糸 スキー中細糸 ロツククライミング バサー絹カラミ 其他各種豊富
京城 和信



시게는 시간이 꼭맛는 월삼이제일이오 림질대하증냉병엔 절대틀림업는 구로벨이제일입니다



제이시험실의광경일부

신성당제일시험실광경일부

이러한 조선제일가는 큰시험실(試驗室)은 신성당박게업다

무료혈액검사

지방에서 설비가불충분하야 혈액검사를못하시는분은 의사에게 피를뽑아 보내시면 무료로검사표를보내드리겟슴니다 (保健奉仕)

最高級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이 제일

快報! 强力治淋新劑

非常時克服

惡疾殲滅

健康報國

비참(悲慘)!!

림균이눈에드러가면이십사시간내에눈이멀게된다림질대중하으로 잘못하면장님이된다 ◇엇지하여야 낫겟다는자신을 가저야한다

◎림질의원인

림질은 고노곡겡이라는 림질균을가진남녀의 성교(性交)로인하야 그균이생식기로드러가서 전염번식하야생기는병이오 ◉림균은엇더한것인가? 림균은 다른병균보다 특히강렬(强烈)하야 뿌리가(淋絲)성하게뻐처서점점번식하는 성질을 가젓슴으로 날이갈사록 신체내부로기피드러간다 그러므로 방광염, 고환염(睾丸炎)『산증』섭호선염, 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란소염, 요도협착, 등 증세를 이르키며 골수에까지 뚤코드러가서 관절염이 생기고 모든 고통을 주는것이다

급성림질과 만성림질

급성은오 좀눌때몹시아프다 림균이침입하야 오좀나오는길(요도)에서번식하면염증을이르키어, 헌데가나는고로오좀눌때몹시아프고 흑피도나온다 만성은아프지는아니하나고름이난다 급성림질이몃칠지나면 림균이점점기피드러감으로헌데는 일시아무나언제든지고름이나며 별별증세가병발한다 잘못하면 생명을일는다!특히요도협착(尿道狹窄)가튼중세는 참위험하다 오좀길이꽉막혀바리는 중세다도회지에서는급히의사의 수술을바더일시오좀길을 뚤키나할수잇거니와의사가속히오지못하면 오좀통이터저서생명을일는일이 종종잇다 참위험하다만성림질이되면 그다지아프지는아니하고내버려두다가 별안간이런증세로변하면그야말로후회막급이다 항차병독을자손에게까지 끼치게하야죄업는후생에까지적악(積惡)을함에 이르나니참두려운일이다

고름은엇지하야 나는것인가?

사람의신체내에 병균이 드러가면혈액(血液)중에잇는 백혈구(白血球)가 그병균을 막어업새기위하야맹렬한싸홈을하는것인데 만일그균이강하면백혈구가도리혀 죽게되나니이죽은백혈구(白血球)가 곳고름이다이와갓치신체속에는 균을막어업새는힘이잇슴으로조곰만 그힘을도아수면당연히병균을죽일수잇다 ⊙병리가(病理)판명되여 학술적치료원리가발견되엿다 림질의원인과증세가확실히판명되자세계적으로 치료게권위대박사의의견이일치되엿스며 따라서그치료원리가발견되엿다。

림질치료원리

【일】 림균은뿌리가 깁히백히는성질을가젓슴으로 내부로부터 그뿌리를업새지아니하면 거근되지아니한다

【이】 백혈구의 힘을도읍고 살균될약제가 들어가면 균이 깁이못드러가게 막을뿐아니라 전부몰사하야 바린다

【삼】 약이위장으로흡수되여신체각부를거처혈관으로 도라방광(오좀파갓치)을통하야 요도에까지이르면병균을 완전히전멸식힌다 (收斂殺菌)흡수되지아니한약은 염증을다 스리지못하며도리혀연약한점막(粘膜)을상하게한다。

【사】 국부에넛는 약을쓰면병균이그약을피하야 점점속으로 드러갈뿐임으로 위험천만이다。

【오】 외치로세척, 주입약(注入藥)을사용하면깁이잇는 균을죽이기커냥약의, 부작용으로 병처가더욱더아파서견댈수업고 더욱림균을점점깁이 밀어너어 더욱위험하다 또남부끄럽게벌니고녀야하니쓰기가 제일불편하다 하물며 깁히백힌병균의 뿌리는결코 전멸되지아니함으로 다시재발되고 또한 그병균은 더욱강하게되여 별별악성완고증으로 변하게된다 뿌리가업서지지아니하면 다시새싹이 나오는것은 보통초목과 조곰도 다름이업다

【육】 반다시 내복약이라야 완치된다 약이유기적 생리작용으로 신체내부로 흡수되여방광요도 심부속에드러백힌 림질균의 뿌리를말려 죽여야한다 흡수된약은 혈액중의백혈구(白血球)와합력하야 천하무적(天下無敵)의 강병이되여 아모리완고한악성림균이라도 씨도남지아니하고 전멸식힘으로 다시는 후환이업게된다 이와가치확실한 학설원리와 실지경험을토대로하야 수십년 고심연구한결과최리상적 합리적 명약이 발견되엿다 세게적으로 칭찬을밧고잇는 림질최특효 최특등고명한 책임제『구로벨』이이것이다

구로벨이 특효한특장은

(一)내복약인것 내복약이라야만속에드러백인림균을전멸식힌다

(二) 약효가급속한것 합리적내복약임으로 그효력이지극히급속하다림질은 속히 고치지아니하면 조섭하기에 곤난하야 완치하기어렵다 단도즉입적으로 그뿌리를 속히잘러업샘으로 몃칠안되여전멸하여버린다일주일이내에약효가난다

(三) 살균력이강렬한것 구로벨은 오십만배의물에 타도 이분간에 림균이즉사한다

(四) 절대로위장을해하거나 부작용이업다 내복약은 위장을상할념려가잇으나구로벨은이염려를완전히업게한것이 특장이다

(五) 매독성 림질또는 림질로인한모든 병에다른약과한가지 병용하야도독특한효과가잇슴으로 아조깨끗하게병독을제하고 완전한건강을어들수잇다

●이러하신분은쓰시오 백발백중이다 ▲늘 약을써도 낫지아니하고 다시재발된분 ▲급성만성림질 부인오좀소태 대하증 월경글으지못한데하혈▲요도, 방광염, 관절염 (고환염)(산증)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란소염, 요도협착남녀냉병, 림독성으로된모든증세

●약갑 완고악성용십오원 만성중증용구원보통용오원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대금인환삼십오전될수잇스면 선금으로주문하시오 일각이라도 지체마시고 곳 쓰시오 추하고 독한 병을 전멸합시다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점니다

支社大募集

大特典附規定書郵送

漢藥도具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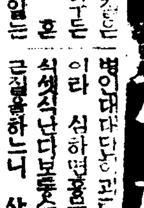
漢藥은朝鮮서神聖堂이 제일싸다

일각의지체는 십년의후회!!

절대신용잇는신성당전문약을지금곳쓰시고건강한행복을누리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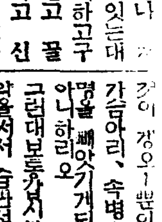
약	가
완고악성에	십오원
만성에특제	구원
보통에	오원
경증급성에	삼원
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 인환	삼십오전

오래고생하시는분은 십오원짜리를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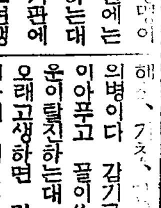
치질엔 엥구루 가제일

누구든지 … 흔히 일는 근질을하는니 상약을하는니하나 … 약갑 중한데는 삼원 경한데는 이원이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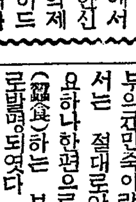
속병 체증엔 겡오ー 가제일

누구나 속병, 체증이 잇는대 … 가슴아리, 속병, 체적이되여 생명을 빼앗기게되니 엇지두렵지 아니하리오 그런대보통약 …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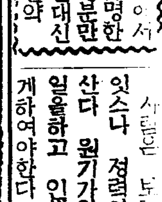
해소 기침엔 에치세ー 가제일

사람이 … 잇슬동안에는 … 이호흡기관에 병이잇스면생명에따게가된다 …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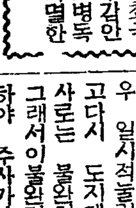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세ー NAOPER 가제일

…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면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



보양 보을 젊어지는약 가이자ー KAIZER 가제일

…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매독엔 푸로다ー PROTER 가제일

매독은 선천후천 두가지로 …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本舖總 神崎神聖堂藥品

資本金百萬圓朝鮮서第一큰藥業會社 京城西大門停留場前 서대문제일큰벽돌집

ケンオー 겡오ー 元王

發賣元 直輸入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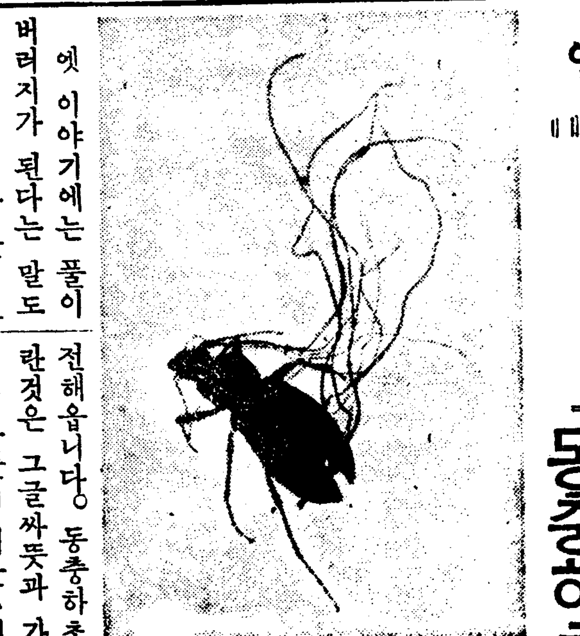
電話光化門長三三四番・三四九九番・一○七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五○番

少年朝鮮日報

오십시요

동화、편지、작문、동요、그리고 학교안에서 생긴 자미스런 이야기 잇거든 적어 보내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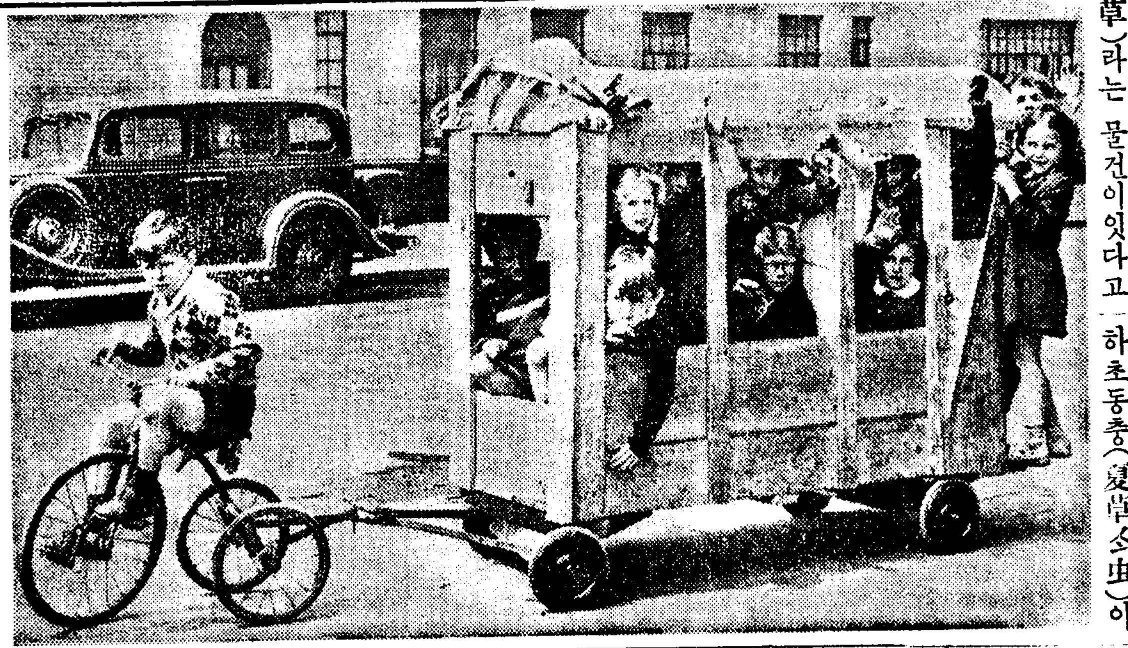
이상한일
겨울에는벌러지 여름되면 풀이돼 『동충하초』이야기



옛 이야기에는 풀이 벌러지가 된다는 말도 잇고 버러지가 풀이된다는 말도잇습니다。사실로 동충하초(冬虫夏草)라는 물건이잇다고 전해옵니다。동충하초란것은 그글자뜻과 가티 여름풀이 겨울ㅅ버러지로 변한것입니다。혹은 그말을 뒤집어서 하초동충(夏草冬虫)이라고도 합니다。그런데 그런게 참말 잇슬리가 잇습니까 옛노인의 거짓말이나 아니겟습니까。아니올시다。참말로 그런물건이 잇서서 한의학(漢醫學)에서는 황달이나 아편중독에 귀중한 약으로 쓴답니다。단지 풀이버러지로 변하거나 버러지가 풀로 변하는것은 결코아니요 버섯종류가 버러지의 몸에서 기생(寄生)하는것입니다。즉버섯의 균사(菌絲)가 어떠케 버러지의 몸ㅅ속에서 퍼저가지고 그포자(胞子)가몸을뚤코자라 나오는 겨랍니다。물론 동양뿐만이 아니요 서양에도 그런현상이 잇서서 일백칠십년된 책속에서도 동충하초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들도 퍽신기하게 녀겻든 모냥이기에 그림으로까지 그런것이 분명합니다。그런데 서양보담도 동양에 만습니다。동양에는 거의신기할ㅅ것이 업도록 만컨만흔히 그일부분이 땅에 무치어서 얼른보히지 안는것입니다。동충하초가되는 버섯도 여러가지의종류가잇스나 그것을 모다 동충하초균이라고 부릅니다。그중에도 맴이 몸뚱이에 기생하는것은 맴이 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은 떡정벌레의 동충하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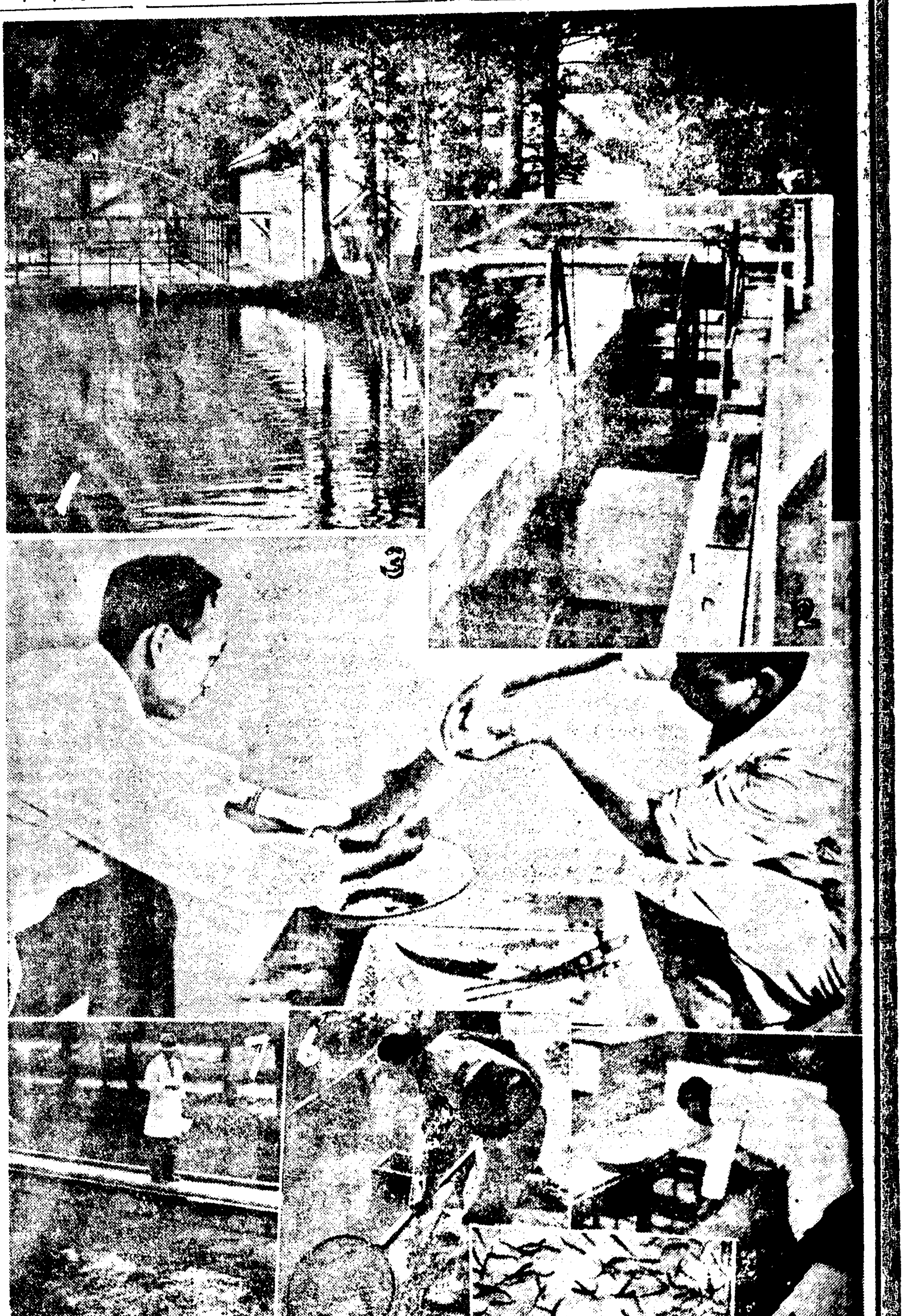
빠스



오―라잇

오―라잇 다음은 우편국아피에요。내리실분은 준비하십시요― 내리실분이 안게시면 그대로 떠납니다。

송어라는생선을 색기치게하는집
여러만마리가우글우글



여러분 송어라는 생선을 먹어보앗습니까? 무슨 고기든지 다 그러치마는 물이나 바다에 잇는 생선을 그대로 잡아먹기만하면 얼마안가서 씨가지고맙니다。그럼으로 사람의힘으로 기를수가잇는 고기는 될수잇는대로 만히 길러서 한편으로는색기를 치게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잡아먹기도하고 또한편으로는 외국에 수출(輸出)하기도 하는것이 정부에서 큰사업으로하는일입니다 그러면 송어기르든 양어장이야기를 하나하겟습니다 일본전국에서 제일큰것이 내지 자하현 수산시험장근처의『성경양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크나 고기기르든 못이 얼마나 크냐하면 면적이 삼천오백십이평이고 그못속에서 기르는 고기가 구십일만이천마리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만습니까? 그래서이러케 만히 기르는 송어를 해마다 외국으로 팔러보내는데 외국을 보내자면 생선으로 보낼수가업스니까 물에 굽어서『간쓰메』를해서 상하지안토록해가지고 보낸답니다。작년에도 일만마리를 미국에 팔너보낸는바 여간 조타고 칭찬을 밧지안헛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고기는 엇더케 기르는가? 지금부터는그 이야기를하겟습니다。

고기라면 첫재 물이업시는못사니까 널다란벌판에다가 큰 못을파고서 산골물을 여러개 따드려다가 못에 갓득차도록 해노코는 그못을 여러개로 논흡니다。맛치 여러분도 유치원에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러케 학교를 올라가드시 고기못도 어린고기 중간고기 큰고기 이러케 따로따로 못을 만드러갈라너흡니다。사진 첫재는 그중에도 제일 어린고기를 기르는데입니다。그러나 어린고기가잇스면 물새들이 날러와서집아먹는다고서 못우에 철사그물을 쫙둘러처둡니다。그리고 큰고기들은 물을 따라서 올라도가고 네려도가니까 그대로 두면 못속으로 드러오는 시냇물을 따라 다라나겟스므로 그것을 막기위해서 시냇물이 못으로 드러오는 어구에다가 사진 둘재와가티 물내밧아를 만드러 거러둡니다。그러면 물은제마음대로 흘러드러와도 고기는 다라나지못하지안켓습니까。

그러면 이고기가 색기를 작고처야만하겟는데 제대로 두면 큰고기와 적은고기가 서로뒤석겨서 여러가지로 곤란한점이만켓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색기치는것도 전부 사람힘으로 치게하는데 이것은 엇더케하느냐하면 사진 셋재와가티 먼저암놈을 붓잡아가지고 저한 그릇에다대고 배를 훌트면 알들이 알을 싹게 됩니다。그다음에는 숫놈을 붓잡어서 또 이러케하면 숫놈은 정이라고하는것을 싹게됩니다。그것을 색깃가른 부드러운것으로 잘석거서 사진 넷재와가티 색기치는 방에 너허서 약삼십일되는동안에 한달가량만두면 사진 다섯재와가티 그 알속에서 이러케 만흔 색기고기가 되여 나오는것입니다。그러나 색기고기는 모의를 떠저주어도 그것이 물속에 까러안지면 원채 어려서 차저먹지 못하므로 나무판재이 끄테 모의를 못처서 물속에 너허주면 색기고기들은 물결들어서 그것을 빼라먹는것입니다。

이러케해서 점점 자라나면 사진 여섯재와가티 건저내여서 어지간이 큰놈은 언니못에 집[illegible] 아버지못에 집어넛케됩니다 그리고 모의는 하로 아침저녁으로 두번식 주는데 모의는 대게 기르는 사람이 모의통을 들고 못가로나오면 그잉은 힘엇이 물속에그림자지는것을 보고서 고기들은 벌써 제모의수러 오는것을알고서 떼를 지어서울우우로 떠오르는것입니다。

歷史이야기
대각국사
文一平先生

고려때 중으로 가장 유명한 이가 대각국사(大覺國師)입니다 고려때는불교(佛敎)가 흥왕하야 아들이셋만되면 반드시 하나는 중이 되는 법이엿는데 이것은 임금이나 백성이나 한가지로 지키엿습니다。

대각 국사는 고려문종(文宗)이란임금님의 넷재아들이십니다。어려서부터 총명하야 하나를 드르면 열을알게 됨으로 문종의 사랑을 만히 바덧습니다。

하루는 문종께서 여러왕자(王子)더러일으되 너희들중에 누가중이되어서 나라를 위하야 복을 빌겟느냐。이때 대각국사가 일어나 섬가 엿자오되 제가중이 되고서픕니다 하거늘 문종께서 이말을드르시고 매우 기뻐하섯습니다。

그리하야 대각 국사는 열한살되든해에 문종의 슬하를떠나 왕자의 부귀와영화를 버리고절에가서 중이 되엿습니다。이로부터 이십년(二十年)동안 도를 닥거 불교에 크게도통하엿습니다。대각국사는 불교이외 모든학문(學問)에도능하지안흔것이 업게쯤 박학자이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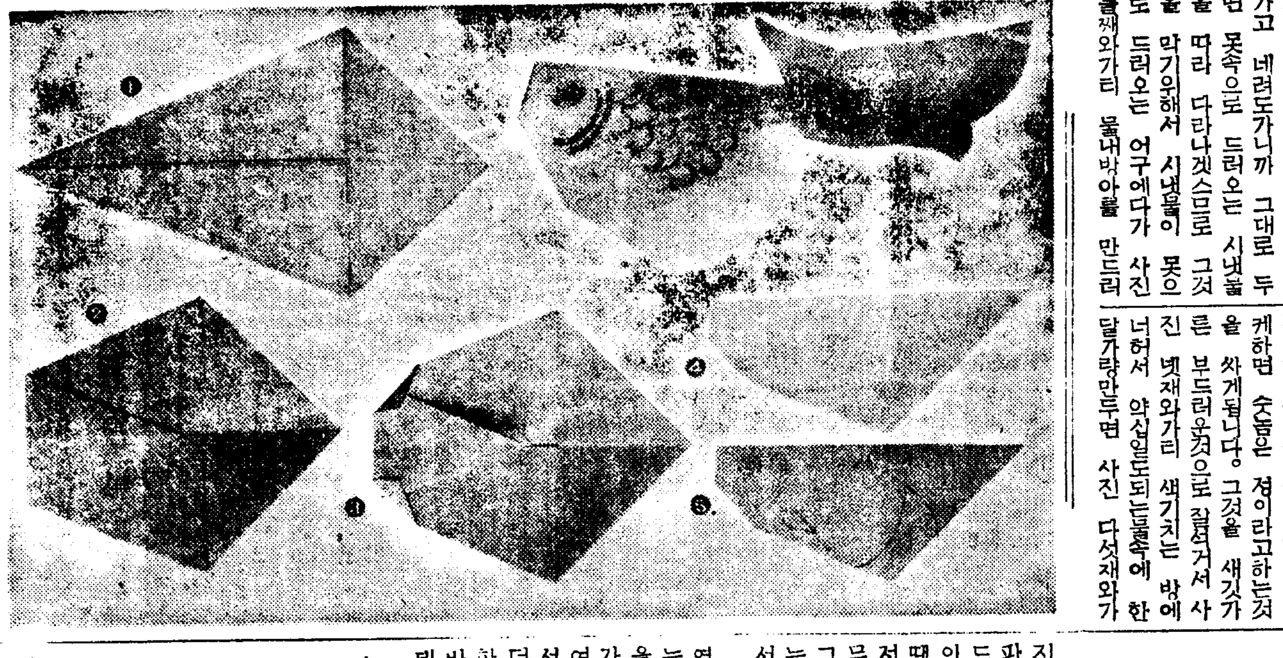
그러나 대각국사는 불교의 노픈중이요 모든학문의 박학자로 유명할뿐이 아닙니다。그는고려문화(文化)의대은인(大恩人)이엿습니다。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版)이란 세계에 자랑할만한 국보인 불교총서(佛敎叢書)를색인분이 곳 대각국사입니다。일개인으로서 이러케 엄청나게 큰문화사업을 한이는 고려때에는 대각국사로써 대표자를 삼어야 하겟습니다。

대장경을 삭이려고 하는 큰뜻을품은 대각국사는 그때동양 문명(東洋文明)의 중심인 송(宋) 나라에 건너가 견학할 생각이 간절하야 여러번 임금님께 청하엿스나 허락하지 안헛습니다。

대각국사는 설혼한살되든해에 임금님의 허락도업시 몰래 배를 타고 송나라에 건너가 송나라 불교를 시찰한후 일년만에 불경을만히 어더가지고 고려에 도라왓습니다。그후에 또다시송나라와요(遼)라는 나라와 일본에까지불교의 서적 사천권(四千卷)을 구해다가 고려에 잇던책을 온통 합하야 대장경관을 색엿습니다。

대각국사는마흔일곱살에 도라가셧습니다。그러나 그공적이 얼마나거룩하고 크든지 중에게 허하지안는 궁중상(宮中喪)을발표하엿고 석가(釋迦)이외에 허하지안는 대각이란 시호를 나라에서 주엇습니다。

종이접시
금붕어



빨간종이로 접읍니다。그러치아느면 노랑종이나 분홍종이로 접고나서 크레온으로 색칠을해도 조흡니다。

1、맨먼저 그림의것처럼 접습니다。한복판에 미리줄이가게해노면 접기쉽습니다

2、접은것의 한쪽가장을 아모로 접습니다。

3그리고 접힌종이를조곰만 안쪽으로 접습니다。

4、반에접읍니다。

5、크레온으로 눈과 목아지께를 그립니다。그러고 꽁지편은 그림의것처럼 가위질을해서 오려냅니다。

다되엇거든 잔종이에 실을 뀌어가지고 서너마리 함께 매달면 보기가조치요。

한창전쟁할때 밥은엇더커나
등산가들도쓰는「군량정」

배가 고파서는 아모일도 할수업습니다。

전쟁에 나간병사들도 배가고프면 싸울을 할수가 업스므로 전쟁의기초는 언제던지 군량에 달렷습니다。그리고한창싸울때밥지어먹을새가잇겟나요。또 그뿐이겟습니까 여러분이 등산을하는데도 배가고프면 산에올라갈수업게 되지안허요 그러므로 륙군량말창(陸軍糧秣本廠)이란데서는 전쟁때에 가벼웁고 간단하며 당장에먹을수잇고영양가치가만흔 양식을 연구해냇습니다。아모리 영양가치가만코 맛이조타더라도 가지고단이기에불편하더던지 무거워서야 쓰겟습니까 그러기에 간편하고 가볍고 부피가 적도록만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지면 몃칠동안을먹고 견될수잇는것입니다。

이러케 가지고단이는 량식은 여러가지 종류가만흔데 사진에서보는 제일첫재는 밥을먹는쌀파 반찬한끼니치를 너헛습니다 한끼니치라하더라도 보통사람의 두끼니치은 충분히되는데 쌀은 현미(玄米)를두져가지고 밧짝눌느고 그냥먹기만하던지 더운물을부으면죽처럼되게만든것입니다 반찬은 고기를말리여넛코 셔탕을 너헛습니다

둘재번것은 된장국물인데 이것은 두홉되는 더운물에 타면 두사람이먹고도 남을만한 된장국이됩니다。

셋재번것은 빵입니다 보통빵을 물끼를빼어 더러게하고 먹기에 편리하며 영양가치가만케 한것입니다。

넷재것은 군량정(軍粮精)이라하는것인데 영양분이만흔 캬라멜가튼과자로서 피곤할때에먹으면 담박기운이 난다고합니다。

다섯재것은 현미(玄米)를두긴것입니다 두긴현미를 다시 눌리서 뭉처노흔것은 언제던지더운물만부으면 죽이될수잇습니다

少年小說
일허버린공
韓相震

순히는 커다란 공 한개를 가지고 잇섯습니다。그공은 노랑 파랑 분홍색으로 알락달락 물드린 꼿공이엿습니다。그러튼것이 하루 오래 가지고 놀앗기 때문에 고흔 그림이 죄 버서저 버리고 인젠 때가 까마케 무더서 아주 보기숭해엇습니다。그래도 순히는 그공을 다시업는 보물덩이로 알고 퍽 애껴서 가지고 놀앗습니다。

어느날 해넘이 서산으로 누엇누엇 넘어가고 잇슬때 순히는 길여페 보는 마당으로 공을들고 나와서 네대ㅅ동무들과가티 공받기를 시작 햇습니다 여기저기에 한사람식 떠러저서서 공을 휙―던지면 밧고 바더선 휙―던지고 하는데 모두 한번식 바든다음 두번째 순히의 받을차레가 돌아왓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던지는애가 공을 너무노파서 던졋기때문에 순히 키가 모자라서 밧지를 못햇습니다

「너무 노파서 못밧겟다 애―」

하면서 순히는 저이집쪽으로 록 록 튀며 굴러가는 공을쫏스러 쪼차 갓습니다。그때마침 늘 단이는 두부장수가 엽길에서 나오더니 굴러가는 공을발로 막어주엇습니다。그러고는순히를 처다보면서

「이―쿠、공이 굴렛소―두부를 사려―」

하고 마치 노래를 부르는것처럼 구성지게 외며 지내갑니다。그소리가 어떠케도 우숩던지

「호호호……」

하고 순히는 우숨을 터트렷습니다。그랫더니 동무들도 경등 따라서 호호호…하하하…우서댓습니다。두부장수가 자기를 보고 우스면서 담배가 엽골목으로 도라갓습니다。순히가공을 주서들고서 또 한번 우서대는편에 엽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바아지를 들고나오시면서

「순히야 두부장수 어듸루 가든?……」

하고 무르시엇습니다。

「지금바루 담배가게 새ㅅ길루 도라갓서요…할머니 내 불러다 드릴까요」

하고 순히가 말햇습니다。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러랍ㅅ이박싯 우스시엇습니다。

「불러 오께요 네―」

그러면서 순히는 공을 손에 든채 담배가가 쪽으로 뛰여깃습니다。골목길을 도라가서 보니까 두부장수는 저쪽으로 걸어가고 잇섯습니다。그래순이가 뒤쪼차 가면서

「두부장수―」

하고목소리를 걸게빼여 불럿습니다。그랫더니 두부장수도

「네―」

하고 기단 목소리로 대답하면서 발을멈추고 도라다봅니다

「이리 오서요 우리엽집 할머니가 두부사신대요」

「네、네、가겟습니다」

하고 두부장수는 머리를 꾸벅꾸벅 하면서 되도라 옵니다

순히는 압장을서서 거러가는데 너무 급히 겻다가 돌부리에그만 톡채여서 너머젓습니다 그바람에 손에든공이 뚝떠러저서 록、록、튀여서 수도를 세울려고 기괴파논 함셔속으로 굴러떠려저 버렷습니다

순히는 가슴이 그만 두근거렷습니다 모르고 벌떡 이러나 함정아프로 가서 그속을드려다 보앗습니다。그러나 함정이 워낙 기픈데다 저녁나절이라 공이 보히지를 안햇습니다『어허 저룰 어떠커누―』

하면서 두부장수도 함정아프로 와서 목관을멘채 목을 길게빼고 드려다 보앗습니다。

『아이구 깜깜해 어떠케 기픈지 뵈지누안하니 저걸 어떠커누……큰일낫소그려 아가씨―』

하면서 두부장수는 순히얼골을 처다보앗습니다。

『괜찬아요 아버지더러 또 사달랠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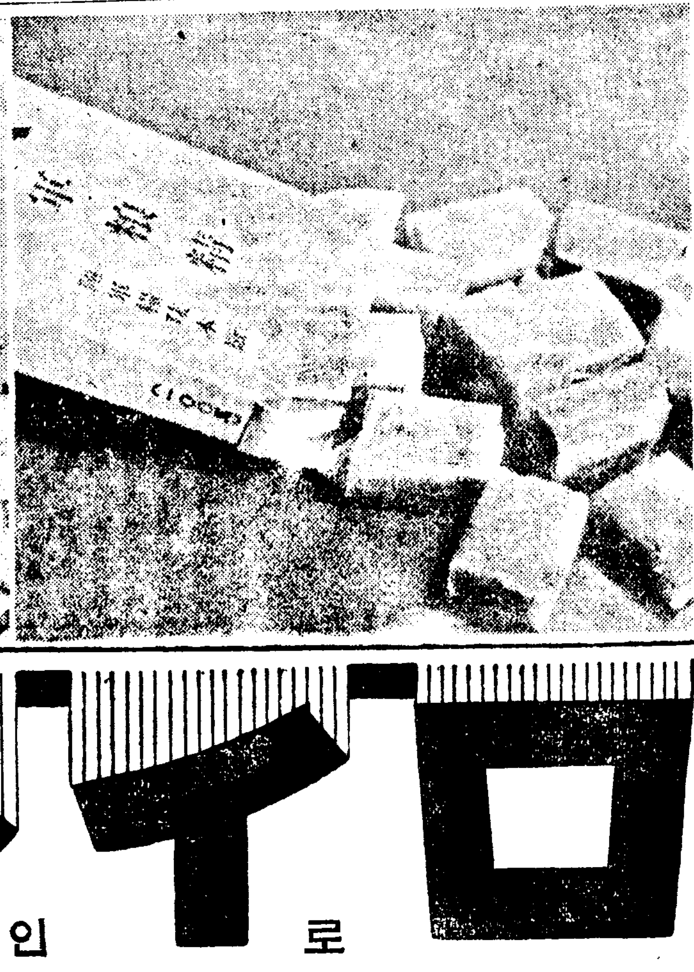
그러케 말은햇지만 실상은 눈물이 글성글성 햇습니다 우름통을 터트렷다가는 사람들 만흔 길에서 숭잡힐테고 하니깐 꾹 참엇든것입니다。

순히는 어찔수업는 노릇이라 손등으로 눈물을 씃―닥고서두부장수를 데리고 종종거름을첫습니다。가서보니까 가치놀든동무애들은 하나도업시 죄 가버리고 엽집 할머니만 박아지를 든채 여태 기다리고 게시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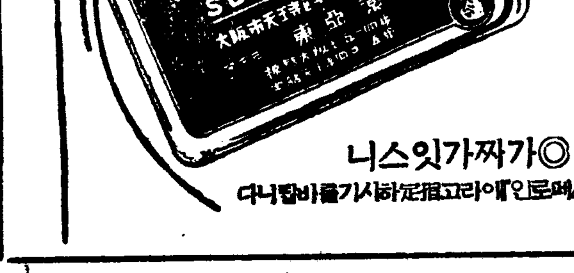
『애―순히 참 애썻다』

하시는 엽집 할머니 말끗도、들은채안코、순히는 저이집으로 뛰여들어가 버렷습니다。어머니는 부어케서 저녁밥을 지으시고 방에는 순히동생 순볼이가 자고 잇섯습니다。방에 들어간 발도 먹기전에 쨋은째은 잠을 순히는 한쪽구석에 도라안저서 전기불이 반짝 켜지는줄도 모르고 훌적훌적 울고만 잇섯습니다。

(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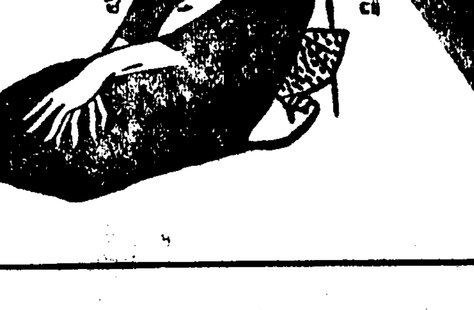


스페로인 スペロイン



◎가짜가잇스니
『스페로인』이라고指定하시고사기를바랍니다

喘息 천식
완고한기침



注射以上의 高貴藥劑!

主要効能

氣管支性 천식
心臟性 천식
氣管支 카타르
感氣
百日咳
기침諸症

多年苦心發明한 本劑를 지금곳服用하야이 무서운 病魔를退治하시라

『스페로인』은 全國藥店에서 取次販賣합니다마는、萬一品切될때는 直接本舖로申込하십시오

藥價 三日分六十錢、六日分壹圓、十五日分貳圓、廿五日分參圓、四十五日分五圓、百日分十圓

送料前金은無料代金引換은滿鮮四十五錢을要함

大阪市天王寺區東平野町三丁目
發賣元 東亞藥園
振替大阪七五一四番
電話天王寺四〇一五番

斷種法의科學的根據

人間樂土를建設하는第一步 (三)

世專敎授 金鳴善

이제人類社會에 惡劣實者가업다면 慈善家들에게 큰걱정이될는지 모르나 惡劣者를 保護함은 眞正한意味에서 慈善이라하기困難하다。勿論 그러라고 當場에 孤兒院 養老院及 監獄을 업시하여야 한다함은 아니다。惡劣實者의 生産을 防止하면自然히 此等은 업서질것이다。이저惡劣實者가 업서지게되며 그等을 除하야 各은費用과 施設을 善良者에게 利用한다면 國家에서말하는 王道國이 곳 實現될것이다。「國民精質向上」으로보아서 斷種法은 斷然施行을 要하는것이다。

國家는 惡劣實所有國民으로 因하야 엇는損害는 얼마라고할가 수업다。監獄의 增築 感化院의施設 結核療養院 精神病院 精神病患者收容所等은 다惡劣實國民으로 因하야 國家에서 必要로認定하야 施設한것이다。善良한國民 健康한國民만 된다면 以上에 여러가지施設中에는 업서질것도잇고 國家經用이 적게될것이다。但國家에서 社會的施設만하고 斷種을施行치아니하면 不遠한將來에 國家豫算은 거이다惡劣者를 爲하야 支拂하이 되지안흘지도 몰을것이다。

米國에서 「쥬크」라하는 惡劣實이 發見하고 精査한 結果 그家族의 祖先은 一千七百二十年에 米國에 와서 「안나」라하는女子와 結婚하야 生産한子女가 五代에 一千二百人에 增加하엿는데 一人도 普通敎育을 修了한者가 無하고 國家에서는 二千五百萬弗이란 巨額을 그一家族을爲하야 支拂하엿스며 今後얼마나 支拂하여야 될것을 計算키도 不能하며 그五代間 子孫等이 養育院에 收容된 日字를 計上하면 二千三百年이나 된다하엿섯다。

國家에서 劣惡實所有國民을 爲하야 國家로서 支拂하는것을 善良國民을 爲하야 支拂케된다면 그 國家는 世界를 支配하고도 오히려 餘力이 잇슬것이다。戰爭時에 國民에 體質이 低下함은 歷史的으로 證明하는바이다。그理由는 戰爭時에는 肉體와 精神이 健全한 國民은 戰場에 出征하고 惡劣한國民만이 남어잇게됨으로서 戰爭으로 맛는 國家에 一時的影響보다 더큰 影響을맛게되는것이다。더욱이 人類社會에 惡劣實者가 存在한동안에는 善良實者가 戰爭하지안흘수업는 狀態이다。이善良實者는 惡劣實者를 爲하야 犧牲을 當하게된다 이것이 「따윈」에 自然淘汰說에 違反되는 現狀이다。即 人類社會란것은 劣者가 不適者보다 生存의 威脅을 밧는것이 엇지안타。國民體質向上을 爲하야서는 斷種法이란 現在國家施設以上의 根本策이라 할수잇는 것이다。따라서 此法이 如히 速히 施行되기를 期待한다。

宗敎的 道德的 國家的으로 斷種이 必要한것이 아니라 人類의 幸福을 爲하는 永遠한平和를爲하는 斷種에 依하야 人類社會에 惡劣實所有者가 根絶되고 善良實所有者만이 生存케되는 時代에야 臨한것이다 (끗)

學藝

書齋閑話 넷智識과새學問 (三)

朴英熙

◇

사람의 마음에는 아름다운寶物이 잇는 한편에 寶物아니된 더러운것이 잇스니 쉬웁게 말하면 그寶物이라는것은 情愛, 愛他하는 精神 또犧牲하는美德, 理解, 寬大等을말하고 그反面에더러운것이라는것은嫉妬,殺人,憤怒 自利主義, 誤解, 陰謀等을 말할수잇스니 或이것을 善과惡이라고 일흠한다면 할수도 잇는것이다 옛날 作品에서 보면 이러한것이 사람의 重要한表現으로서 나타나서 잇는것을 볼수잇스며 따라서 現代의 作品에는 善惡의 內面生活을 조곰좀 加入하고는 그우에 살찌게해버린것을 차저낼수잇다 文學은 道德의 全體는 아니라 하드라도 적어도文學은 사람의本體의 善惡을 表白의(作家)境地에서 어떠한 方向으로 表現해야할것이다

아모래도 現代의 作品에는深奧한 善惡가 엄고生活의 美醜이 缺如되여잇다 그것은 옛날사람들은 이善惡에 關한것을人間의 全體로생각하고 그것이 生活의 基本이 되여서 이것이시는 生活의意義를 形成하지못하엿다。그것을 理解하고 解釋하고 또는勸善懲惡의 實行에 잇서서 勸動員을 한셈이다。宗敎와 文學파哲學이 이한 軌道우에 서잇섯다고해도 過言은 아니다。近代나 現代에 잇서서도 生活의範圍가 넓버저서 그속에 파뭇처서 얼는 크게 드러나지는 아니하엿슬지라도 그 基本的情想의 關係는 그道德問題에서 떠나지못하엿다。나는 古典을 읽으면서 그러케 對照해 보기도 하엿다。

或은 그러한 問題를 全然히 떠나서 新奇를 趣味로 삼는 作品을 더러보는때도 잇다。女子나 男子의 情操觀, 義務觀, 社會觀, 道德觀을 是非하는것은 벌서 캐케 묵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自我主義에서 허덕이다가 結局 苦悶, 悲哀, 不幸한 生活에 이르거나, 흑은그 無知한 生活의 結果를 戲化해버리는것이 近日 모던이즘作家의 構想이며 手法이다。그리고보면 모던이즘 作家도 結局은 人間의 內面生活을 深刻하게생각하지 안을수 업는것을 無視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이內面生活의 諸問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또未來까지 言辯하게될때에서完全한 解決이 업을것이지만 現代 우리가 그問題에 對하야 關心이 적은것은 그問題가 完全히 解決되엇까닭은 아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곰도틀림이 사람들이 悲歎하고 希望하고 所願하는것이 하나 틀림이 아니다

例를들면 죽엄과 사랑은 古今이업이 사람의 生活가운데重要한 場所를 차지하엿지만 그外의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운 情愛에 關하여서도 또한 古今이 同一하다고 할수잇다

얼마前에 杜甫의詩를읽고 혹은 李白의 詩를 吟味하다가, 또한 그와 同一한 詩句를 엇엇다 杜詩의 貧交行에서 보면 世에 友인의 恨歎하엿으니, 管仲과 鮑叔의 아름다운 交友를 노래하고 「此道今人棄如土」라고 그러한 交友를 지금사람들은 흙과갓이 내어버림을 悲歎한것이지만 이것은 오래옛날 杜甫만이 悲歎한것은 아니다。지금에잇서도 때때로 사람의마음속에 떠올라오는 問題이다。

惆悵立路岐。哀哀悲素絲。
路岐有南北。素絲易變移。
萬事固如此。人生無定期。
田竇相傾奪。賓客互盈虧。
世途多翻覆。交道方嶮巇。
斗酒强然諾。寸心終自疑。
張陳竟火滅。蕭朱亦星離。
衆鳥集榮柯。窮魚守枯池。
嗟嗟失權客。勤問何所規。

이것은 李白의詩다。市道의交를 譏刺한것이지만 사람의 世俗的生活를 如實히 말한것이다 信義업는生活 志操업는生活 하잘것업는 友交를 譏刺하고 悲歎하엿슬뿐 아니라 생각하면 歡行의 어詩文이 사람의 社會를 남겻엿시 描寫한것이라고 할수잇다。오래전 詩聖李白의 悲歎은 또한 今日의 悲歎이아니면 아니된다。오히려 그때보다 말할수업시 深刻한데까지 빠저잇는것이 今日의 現狀이다。나는 이詩를 예번이나 외워보앗다。吟味하면 할수록 新味가생기는것을 깨다랏다。

또한 『페런』의 『文藝復興』에서 두가지의 佛蘭西의옛이야기를 볼수잇는데 그中의 하나인 『아미스』와 『아마일』의 아름답고 자미잇는 이야기는 그亦是 옛이야기지만 新鮮한興味와 情感을 이르키게한다。管鮑의交보다도 더아름다운 이야기니무 親友가 相別한지 오래매 『아마일』은 王位에 잇고 『아미스』는 문둥病者인 乞人으로서 舊友를 차저와 서로 옛날親友이엿든것을 알게되매 王은 그를 歡待할뿐만이 아니라 神의啓示에조차 自己의사랑하는아들을죽이여 그피로 벗의病을 고처주엇는데 나중에보니 그죽인아들이 조곰도 傷함이업시 다시살어낫다는 傳說이다。이러한 傳說도 傳해오지 오래지만 언제드러도 자미잇는 이야기다。

또한 杜詩를보다가 懷古란詩에서 그의벗蘇源明의 죽엄을悲歎하면서 이런말을 하엿다。老能知明鏡。悲來望白雲。自從失詞伯。不復更論文。

◇隨想◇ 마음이짓는悲劇 (上)

李燦

열길 우人물속은 아러도 한치 사람의 마음속은 아러널길 업다 라는 俗言이잇다。事實마음이란것의 기괴가 한치인지두치인지 그方面의 어두런 通詣못가죽나로선 能히 이에 共感하거나 또는 異議를 가질수도 업는바이나 萬一 마음이 우리들의 머리스곳부터 발뒤人굼치에 이르는 全身全長에 君臨해잇다손치드라도 키다리別名을自他가 共認하는 나의 그것을내세워 直立不動의 姿勢를 取케하고 우으로부터 아래로자(尺)量드리워아무리 이것을 好適로 測量한대도 前後의 우人물기괴에 비길바못될것만은 事實인것이다。

그러면 웨 確實히 이처럼 더여든것이보다 몃곱절 더기픈것보다 그內容을 헤아내기 어려운것인가。

그야 비록 一定한 한사람의 눈이라드라도 그때의 生理的條件 精神狀態等에 依하야 때로 常識에버슨 視覺現象을 갓는수가 업을바아닐것이나 설사 가튼 瞬間 가튼場所에서 上記의 두개를 同時에 觀察한대도 그結果는 아마 依然할것이물미더도 조흘상십다。그러면 그原因은 보는눈 그便에 잇는것이아니라 보혀지는物件 그쪽에잇슴이아닌가。

마음의 不可思議 그것은더기서부터 비롯한다。비롯하야여기 머물지안는다。그기괴 그構造뿐아니라 나아가 그所爲 그作用에 보다 驚愕의눈을 뜨지안흘수업다。十二月嚴冬에 얼어붓고 陽春三月에 풀려괴이는우人물속엔 주위라는 明白한 由因을 차저내기 어려울것업지만 例如 설혼일을 슬기는양하고 미운것을 조하하는양하하며 탐나는것을 탐탁치 안흔체 하고시픈짓을 또한 홍미업는체하는 어야릇한 마음의 所作을 무엇으로 理解할수잇슬것인가 뿐인가 어쩌다 對한 즐거운 자리에서도 뒤에올 寂寥를 聯想하야 꿈딴긴 憂鬱을 잇지못하고 白髮갈튼 戀人의 자즈러지는 포옹에 四肢는 봄눈녹듯 녹어들면도 그瞬間조차 그女人의 죽어살네린 白骨까지 幻想하고 喜之於 한어시 스러올때 도리혀 우슴짓고 우어서 기꺼올때 오히려 눈물지는등 이枝를키어려운 怪異한 現象을 무엇으로說明부칠수잇는것인가。

보다도 뚜경더튼 우人물속이 제힘으로 기여올러 그릇에 노혀잇담 오늘까지 드러본배업스나 마음 그것은 때로 그어떤 무거운 뚜경도 한장 조히가티 無礙하고 나타나 제自身조차생각하면 意外의일을 大膽이 저술르는 蔽怪한 性行의 所有者이기도하다。

우리들의 社會生活에 所爲 『法』以上의국어운 뚜경이 어듸잇스랴만 이것에對한마음의反逆은 구래여 머ㅣㄴ 過去를 차즐 必要도업고 누가 부끄럼업시 虛僞의 말을 손내밀어 바드라만 그로하야 한女人의 치마꼬리에 그의 一生까지도 바처버리는 聖賢諸位의 卒倒에足할 行動이그러나 이러듯 非一非再한은 不可思議 그것을 두고 어듸가 解答을 求할것인가 마음 그것은 말로 그러지안흘일에 그러다가도 그러지못할일을 敢히 그러기도하는 一言하야 우리의 志向을바더 志向삼지안코 우리의 操縱을따러 操縱대로 行動하지안는 그것은正히 우리의것이면서도 우리의것이아니랄수밧게업는 너무나 自意識이 强한 異端的存在다。

歷代史談 清朝의兵制 ⑧

崔滄海

滿洲旗兵의 萬能이든 淸朝도 近世에 와서는 漢人部隊의힘을 빌리지 안홀수 업섯다 例하면 所謂 洪 楊의役 即長髮賊平定의 戰役이엇다洪秀全은 長髮賊魁요 太平天國의 天王이엇고 楊秀淸은 秀全파 함께 起兵하야 東王이란 封號를 바덧슴으로 洪秀全파 並稱하야 洪 楊이라하고 또 이戰亂을 洪 楊의亂이라 한다 이戰亂에 잇서서 曾國藩의湘軍과 李鴻章의淮軍은 크게 平定의 功을 이루엇다 湘軍은 湖南漢人의義勇軍이오 淮軍은 安徽漢人의義勇軍임으로 從來 滿人獨占의 兵權이 漸次 漢人에게分讓되는 傾向을 보이엇다

洪 楊의亂은 果然 엇더한것인가 이것 [illegible]것도업시 漢族恢復主義에 依한 擧兵이다 漢族結集의 俗인 長髮을 唱導한것은 너머나 陳腐한復古主義인듯 하나 二百年間胡俗 胡制에對한不平的表現이며 太平天國이니 하는 耶蘇敎의 形式은 西洋人에 迎合하라는 것이라 하나 그實은 漢族의 數千年間 典型的、傳統的思想의 破産을 宣言한것이며 同時에 漢族의 反滿思想인 民族主義가 宗敎의 博愛的假面을 쓴 西洋資本主義에 對한 迎合的 運動이엇다 다시말하면 洪、楊의亂은 漢族의 民族運動이 부르조아民主主義階段에도 歷史的轉向을 試行하라는 重大한 모ㅣ멘트이엇다 이러한 모ㅣ멘트를代表한洪、楊의 反亂에 對하야 滿人은 自己의 無力을 깨닷고 湘、淮二軍과 가튼 漢族의 兵力을 빌려서 그것을 平定하얏스니 滿人의 以漢制漢의 成功은 果然 크지안흔가 滿人은 傳統的 秘策인 漢軍不飄主義를 突然히 豹變하야 湘淮諸軍에게 兵權을 授與한것은 決코 漢人에게 兵權分與 그것을 爲한것이 아니오 一部漢人어 湘、淮諸軍의 成功에 依하야 沾沾自喜하야 써 漢族의 民權恢復의 機運으로 認識한것은 結局政治的 色盲의 自己欺瞞에 지나지 못한것이다

太平天國의 亂은 마츰내 失敗되고 마릿스나 그것의 끼친 影響은 實로 偉大하얏다 近來 漢人의 民族的運動인 興中會 國民黨等의 運動은 그 系統을 모다 洪、楊에서 發하얏다 그러서 洪氏를 明末淸初의 鄭成功一族에 比한다는것보다 한거름 나가서 近時國民黨主人인 孫中山前身이라고도 할수잇는 것이다 光緖二十二年(西紀一八九九年)發行인 『太平天國人物攷』의 序文에 匿名著者 冷眼鐵面水心袖手人은洪, 楊의 壯擧가 失敗된것을 심피 해 가로대

哭向神州莫一慟!
開風誰祀秦洪楊!
漢九不復用寧死!
何物漢兒敢保皇!

(ㅡ의 感歎符는 原文 그대로)

그는 또 題詞에 가로대

四十年前新漢明、
金陵王氣黯然消。
天王仁澤普民族、
父老於今說宣號。 (完)

小文庫

趨庭錄 (二五) 불한당은明火賊

袋山生

우리말로 불한당이라는 말은 暴力으로 남의 물건을 强奪하야가는 도적인데 불한당을 省略하야 또 或 한당이라고도말한다。그러면 大體 불한당이란 무슨 意味엿슬까。불한당을 漢字로쓸때는 明火賊이라고 썻는데 明火賊을 省略하야 그도한 火賊이라고만도 쓴다。

그러면 어째서 何必에 明火라고 하엿슬까。大槪 明火賊은 竊盜가아니요 强盜의類며 一個人이 아니요 무리지여 다니는 도적이다。本來 그들은 만하불을 켜가지고 夜襲을 行하든것으로서 明火賊이란 이름도 거기서 생긴것이라라고 推定된다 그런데 불한당의 『불』은 勿論 明火의 火려니와 『한』은 무슨 의미며 『당』은 무슨의미란 말가。『당』을 漢文의 『黨』字라면 어떠케 『黨字』로써 『賊』字의 뜻을 表示하는가。本來 黨字는 朋의뜻이요 輩의뜻이라우리말로서는 무리라든지 떼라든지 색일人것인즉 그自體에 對한 善惡의 批判은 相關할人것업시 어떠한性質의 集團이거나모두다 黨임에 틀림이 업다。色目의 是非를 黨論이라고 하고 그들의 갈래를 黨派라고 하얏든것만보더라도 오직 賊黨만을 黨으로 일컷든 것은 決코 아니다。그러나 賊黨을 普通 黨이라고만 쓴 例도 적지 안 하니 數가 만흔 賊黨을 大黨이라고 하고 또 貧民에 同情하는 賊黨을活貧黨이라고 하는等이다。일로써 미루어 볼찐댄 불한당의 黨字를 明火賊의 賊字처럼 쓴그것도 別로 佐異할人것은 업는일이다。단지 『한』의 의미가問題다。即 밝다는 明字를 어떠케 『한』으로 색이엇드냐는말이다。그런데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 도다 온다』라는것은 古時調의 一節이 아닌가。『솔불 혀지 마라』의 『혀』는 곳불을 켠다는 『켜』의 古音이 아니겟는가。그러니까 불한당은 곳 불현당의 訛音이요 불현당은 곳 불켠당이란 말이다。불을 켜가지고 다니는 賊黨이기 때문에 불현당이라고 한것으로 漢字로 明火賊의 意味와 조금도 달울人것이업다。그러나 한便에는 『현』이 『한』으로 訛音되고 다른 한편에는 『혀』가 『켜』로 變하매 오늘날 와서는 그 語義를 잃어 내기 어렵고 또 한便에는 불이 略되야 『한당』이 되고 다른 한便에는 『明』이 略되야 火賊이되매 오늘날 와서는 그關係가동이닷쳘 안케 된 것이다。더구나 요사이 俗語로는 불한당의 『한』이 다시 『안』으로轉訛되얏스니 불안당이란 말을 가지고 明火賊의 녯 뜻을 찾기란 더 한층困難한일이 아닐까 한다。

今春各學校入學案內 (詳細는該校에直接問議하시요) (三)

[illegible]公立高等小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十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廿二日 至三月廿四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illegible]公立高等女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二月二十五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二月二十八日至三月二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中篇小說 女人命令【43】

李善熙 作　崔根培 畵

거리의등불(十)

숙채가 이집에 온지 그럭구려 두어달되엿다。그러케 안나의건강은 점점 나빠갓다。

『의사가 할일수잇는에는 몸을 향아야겟대。』

『그럼 활ᄋ서야죠。몸만 낫으면 주시는건 종겟다가요?』

『아마 그러켓지』

『찜질 도합까요?』

『에구 해주는 사람이 괴로워서어떠케 도한담。』

『괴롭긴 조키만하면야 작고하지요』

숙채는 화로에 불을 피우고 그우에 대야에 약물을 담어드러노코 수건들을 버꾸워 짜가며 찜질을 시작햇다。

안나는 앙상한 갈비대에 겸언 고약을 바르고 드러누어또거운 수건이 살에 다을때마다 얼굴을 찡것다。

『나가든것은 이담에 늙어서국더라도 알지말고 그저 잘살듯 자저버렷스면 조흐련만- 진날병이나알고 드러누엇스면 어느자식이잇스니 돌아볼놈따듯이 떠다주까。그러기에 사람마다 자식을 나어야하고도 늙으막에는 그덕을 보게마련이야』

『어느새 늙은이가튼소리는 잘하슈』

『홍ㅣ나는 어쩐지 내나이보다 십년하나는 더늙엇서。그것도 몸이 그러는게아니고 마음이 제절로 그러케되거든』

『언니ㅣ 그런데 난요즘 머하나 생각한게잇는데……』

『멀생각햇서 어데다더런가려구그래?』

안나는 불안한빗조로 숙채를 처다본다。

『아니 요즘언니 건강도 조치못하고한데 내가 언니일을좀 도아드렷스면하는데……』

『날 도아줘?고마워라 그러치만……나는 숙채를 파리찌만한 홍집도어서 시집을 보내려고하는데 그런데 나가서되끼?』

『그런데서 일을보면 홍집이생기나요。나는 그저 『카운터』에서 돈이나 회게하겟는데무스상관잇서요?』

『글세 아주 무사할수도 잇슬가?』

『그야 언니가튼 사람은 이테봉에서 저대로 도라다니는 사이에 무슨 독(毒)을 만드러내는지 노릴지만 나야 그저회계일이나 보는데 무슨큰일이잇서요?그리고 언니도그러지 언니가 만드는 그독이 술을 괴게하기위해서 어떤세큐이 필요한것처럼 사람의게 필요한것이라면 아모흥될것도 업지안허요?』

『내가 만드는 독이 사람의게 필요한것이야?아니 그럴리가 업서。나는 죄인이야』

그날저녁 여섯시 안나가 세수하며 숙채도가려햇다。그리고 안나가 벌써숙채를 위해서 지어두엇든 것은 「비로도」「드레쓰」를 끄내이엿다。

『이쪽으로 좀도라서요。그리고 이팔을 올고……여기다가는핀을 찔러야할텐데ㅣ여기가펑펑한것갓잔어?』

이러케 한참 분주하게 숙채에게 옷을이피든 안나는 자기도모르게 겻눈질로 숙채의모양을 도적해봣다。

『참으로 아름답다』

안나자기는 벌서 오래전에써어버린 생선파가리 어떠케 다시는 손을댈수업시 쭈그러들고 망처지것가튼 생각이들자 갑작이 마음이 캄캄해온다。

『우리 언젠 나가봐』

『홀』안은 오늘밤도 야단스러운 불빛과 음악소리에 빠까지 흥썬 몰롤드록 번회하고 부드러웟다。

숙채는 목아지가 기다란 봄고푸른 양수병들을 느러노흔아페 고개를 수그리고안저 돈회게와 웅직주문을 전담햇다。아니게아니며 엄굴을 들고안첫기가 몸씨장피하다。역시 자기방에서 생각하든바와는 달릿다。

『하로ㅡ안나 오늘은 기분이어떠시요?』

아메리카 신사라고하는 언니전문학교 강사다。

『여보게 작작 떠들게。그런데 저새진 누구요?』눈이 뒤진히겟는데……』

『옹? 참 저게 누구야? 오ㅣ나의 태양이여! 나의 쫄리엣 나의 처녀……』

아메리카신사는 벌써 다른테서 처먹은 술에 대취해서 비틀비틀 자리에서 이러선다。

『이사람 어듸로가나?』

『나? 난 저 호의의 처녀에게 가서 그치마자락에 키쓰를 할러네』

『왜이리시우? 여기 가만히 안저잇지안흐면 업에다 자빠질물쥐테야』

안나가 아메리카 신사를 잡아다려 다시 자리에 안첫다。

『여보안남 그리지말고 나좀소개해주우。』

『안돼。그처녀의게는 무서운번견(番犬)이잇스니까 함부로 덤비다간 큰코떼울잇에어요。』

『번견이라니 그번견 누구요』

『나ㅣ』

안나는 자기가슴을 가르켯다。

치운요새에재발된
림질은 이러케 곳처버립시다

內服藥으로는 淋疾이낫지안는것을 몰으신분도 새로發明된 淋疾徹底 二重療法으로곳치시면 단二分間에 治療効果가 나타나서 自宅에서라도 短時日에 根治되여버립니다

매년이때가되면 덧나서 고통을밧는분이나 지금걸려서 다소간苦痛을밧는분들이 임질을 그리대소롭지안케 생각하시고 그대로두신다면 그害毒은참으로 무서운것입니다 첫재로 자기신세가 딱하게되고 둘재로 부인께무서운부인병을 알케만들며 셋재로 조선민족건강을 해롭게하는것이니 어찌 治療를등한히하시거나 또는 治療法과 治療藥의 선택을 경솔히 할수잇겟습니까!

—첫재로— 內服藥으로는림질을絕對로 못곳치는것을 모르닷

이니 흔히 習慣에따라 淋疾도內服藥으로 곳칠수잇게지하고 장구한時日을두고 服用하시나 오즘누기에나 便通이좀조화질뿐이오 림균은 조금도 죽지안흠으로 병세는 점점중하게될뿐입니다 즉 獨逸의世界的性病大家『와렌친』『슈라인』兩博士가 이學說을發表한以來 醫學界에서는 研究와 實驗을거듭한結果 專門醫師치료에는 반드시 强力한殺菌力을가진 銀劑로 즉접부에치료하여야만 淋疾을 根治시킬수잇다는것이 現在 醫學界의定說입니다 즉內服藥(가루약、물약、膠球)은 사람몸안에서는 림균을 죽일만한힘이업는까닭이니 萬一强한 藥이면그만큼腸이녹아버리거나 오좀이 맥히게됩니다 이런증세들은더러는 前입되뒤 內服藥을 연복하여보는 쫌 症勢가개이니가『올것갓다』하고 생각하시나 이것은낫은것이아니고 淋疾의특증인 一時的安靜속 急性淋疾에서 慢性淋疾로 病勢가發할때에 그러것이니 그후 아모리퍼붓듯 適服하여도 病勢는 그대로 잇고 藥만 끄치면 또다시 再發되는것을이미 여러분께서 경험하신일인줄 밋습니다 이러는동안 병세는 重하게되여서 무서운 併發症을일으키는 분이얼마나 만습니까!

—둘재로— 남편이걸리면 반듯이부인께전염되는것을모르시는탓

이니 흔이 아해를못낫는다고 구박을하시나 그것은 대개男便께림균이잇서서 부인병을일코잇는때문에 그런수가만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협력하시와 두분이가티 곳처주시기를바랍니다

—셋재로— 醫師專門淋疾藥으로집에서 도속히根治되는藥을모르신탓

이니 淋疾은元來 그한부(남녀국부)에퍼이들어가서 生긴病인만큼 그곳을도려내듯이 그곳의病菌을 죽이고 흠집을아물게하면 낫는것이니 전東京吉原遊廓吉原病院長 佐藤榮先生이 재임 十餘年中 수만흔 花柳病者를 직접 治療하시는동안에 實地實驗으로 成功된 淋疾根治藥이 世界的大發明으로된것이니즉『부라오銀겐고ㅣ루』는내病院에서도 臨床治療에 使用한바 的確한効果를어덧스며 더구나 一般自宅治療에도 安全히 根治할수잇스므로 조선의專門醫師諸氏와 一般患者諸賢께자신잇게勸하는바입니다。

百發百中으로

오좀누기에고통이심한분
再發되야 한탄하시는분
內服藥을장복해도낫지안는분
부부화합에자미를모르는분
부인병으로고통밧는분

림질이근치되는『부라오銀겐고ㅣ루』로 二重殺菌하시면 무슨약보다도 短時日안에근치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자택에서도 아무 염여업시 간편이병원치료와 똑가튼 효험을 어케되오니 급성중인분이나 만성중인분이나 本劑의 一號와 二號를 계속하여서 치료하여주서며 부인께서는 三號를 써서 부부협력하시와 두분이 가티 치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二重殺菌을
해야만림질은
根治됩니다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의사전문의 탄결근치약『부라오銀겐고ㅣ루』는내직접 병화신에작용하며 약기운은 몸전신에 퍼저서 모든증세를 다스려주나니 더구나本劑는 사라잇는몸조직과 병세의변화를 고로하야 二重殺菌을하는약인만큼 재래의치료제의單一性能에비하야 더욱 특효를가진약이오니 한번바삐 병고에서버서나실려분은내근처有名한藥店에서나 혹은직접조선총판으로 병세를자서히쓰시고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洞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

으로 주문하시면 本舖에서독자에한하야 送料를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의해드립니다

ㅣ약가ㅣ보통약…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입니다

ㅡ(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ㅡ

全國の一流理髮店が推奬絕讚する!

파리一製보다優秀한
國産最高基準品
손이안걸리고 헤푸지안코 整髮料
純植物性 專賣特許

諸名士와 丹頂チック

ㅡ東京·大都理髮店主談ㅡ

어시는바와가티 當店에오시는손님은 政界財界의 知名人士가만흠으로 따라서當店에는衛生設備、從業員의 訓練等에도 特히힘을써서 恒常손님들의 滿足을엇고자 不斷의 精進을하고잇습니다 特히 使用化粧品에對해서는 格別한注意를 하고 지금까지는 輸入品만 愛用해써왓사오나 今回의 事變을轉期로해서 國産愛用의 實을擧하고 大英斷으로 全部國産品을 使用할決心을하엿습니다 그中에도整髮上 第一重要한 직구의選擇에對해서는 特히 苦心을하엿고 同業諸氏가 十數種을 試用해보앗사오나 結局 丹頂직구가 第一優秀하엿음으로 이것으로 選定하엿습니다 丹頂직구는 지금까지 늘써오든 ピノー에 比하야모든點으로 조곰마한 缺點도업습니다

國産品에도 이가티優良品이잇다는것은 정말意外엿습니다

다만한가지 걱정하고잇든것은 손님들의 不滿이엿는데 그것은 國産愛用을 實踐하는 意味에서라도 大滿足 해하심으로 참으로 感謝의 마지안는바입니다 ㅡ略ㅡ

丹頂チック

단정 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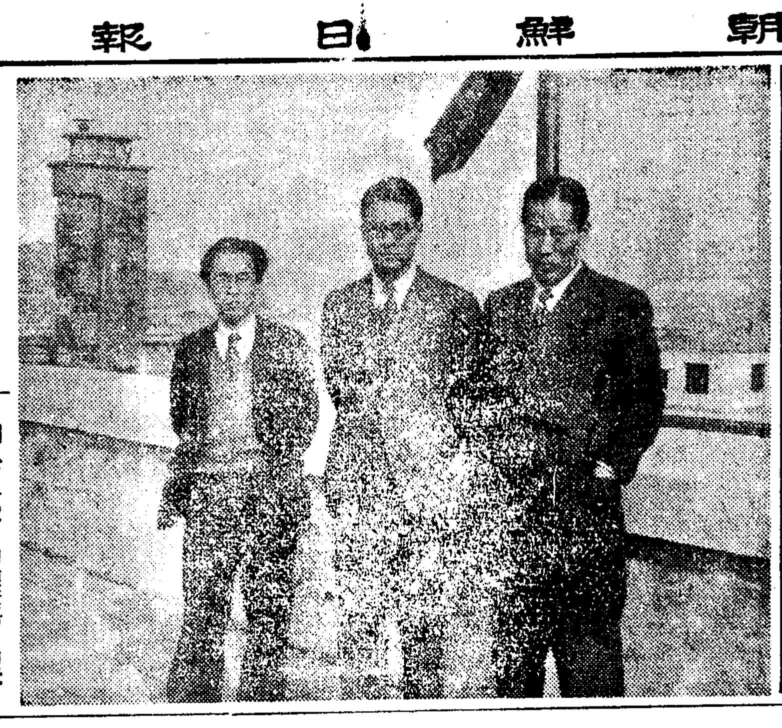
娛樂

의 映畫上經驗으로 箇出하지아니하면 안되기로되어잇다.

封切最低保證金 勿驚、二十五萬弗
유나이트色彩映畫 長期興行이래야可能

유나이트社 營業部長 조ー지·세파ー氏는 同社의 極彩色大作『골드윈·포ー리스』의 브로드웨이封切에 對해서 라듸오、시틔ー뮤직·홀·리보오리ー劇場、와ー너劇場과 交涉을 開始하엿든바 封切料金은 最低保證金 二十五萬弗을 要求하고잇다

이것은 米國映畫興行史上 空前의高額으로 現在까지의 最高保證金額은 亦是 유나이트社가『모ー던·타임스』의 倫敦封切에서 릐브오리ー劇場과十二週間續映으로 二十五萬弗을 바든것이엿다。그리고 米國에잇서서의 最大保證金額은 二年前亦是 同國의 릐브오리ー劇場封切로서 十六萬五千弗의 最低保證額이엿는데 골드윈·포리스는 아직業界에서 試寫도한번하지안코 一般에게는 그저『大作』이라고만 알려저잇는만인데 이作品에 二十五萬弗의最低保證金을 支拂하자면 六千人劇場의뮤직·홀이라고 하드래도적어도六ー七週間、다른二劇場에서는十週間以上의 長期興行을하지 아니하면 안되겟슴으로 封切交涉의 進行은 一般의 注目을 매우끌고잇다고한다。



東寶의谷口氏 本社를來訪 →

東寶映畫株式會社企畫課의 谷口千吉氏는 今番聖峰映畫園과의 合同製作打合을爲하야 來京하얏는데 지난二月十日 徐光霽氏와함께 人事次로 本社를來訪하얏다

聖林映畫깽 一網打盡

허ー리웃드란 아무려튼映畫의 王國인만큼 엑쓰트라도만코 俳優志望의 映畫펜들도 만허서 그數가實로一萬 乃至二萬千이라고하는莫大한數에 達하고잇다 더구나 엑쓰트라로서 映畫에出演하기를 熱望하는패가 만흠으로 이것을 해먹으려는 깽들이 허ー리웃드에 跳梁하면서 彼等 엑쓰트라들에게서 거두어 드리는 金額은每週數千弗이나된다고한다 그리고 最近 허ー리웃드에서 이러난 엇던 殺人事件에서 端緖를 發見해서 多數의 映畫깽을 檢擧하고取調하엿든바 허ー리웃드에잇는 여러개의 엑쓰트라클럽은 모다 映畫깽이 牛耳를잡고 操縱하는바가 判明되엇슴으로 今番에는 새로운 取締規定이 公布되여 엑스트라 希望者는 映畫俳優組合

라듸오

十二日(土曜)

◇午後六時(平) 노래와피아노 一、合唱 인디안의새벽 노래…자메니크作曲 二、二重唱 들장미향기롭다…흐ー作曲(李東明、尹必女) 三、피아노獨奏 悲愴소나타…베ー토ー벤作曲(李仙明) 四、獨唱 夜曲…드니고作曲(李善源) 五、合唱 榮光…모ー차르트作曲 六、合唱 愛國行進曲…內閣情報部撰定 正義女子高普校生徒 伴奏 李喆鍾 指揮 梁允永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農村講座(一) 金雄珏
◇同七時四〇分 講演―國民精神總動員第二回強調週間第二日― 總督府社會敎育課長 金大羽
◇同八時(東) 吹奏樂 一、愛國行進曲 內閣情報部選定 二、와ー텐부르크의陣營 단크作曲 陸軍戶山學校軍樂隊 指揮陸軍軍樂中尉 山口常光
◇同八時三〇分 라듸오小說 韓銀珍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五倫歌 二、唱劇調 春香歌中 石되너머가는데 金晴寶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만노림
◇同六時(東) 講演
◇同六時二五分(城) 講演(全國中繼)
◇同七時三〇分(大)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吹奏樂
◇同八時三〇分(東) 詩吟
◇同八時四〇分(東) 物語

十三日(日曜)

○國民精神總動員第二回強調週間第三日
◇午後〇時五分 一、小春香歌 二、朴淵瀑布 三、孔明歌 四、遊山歌 朴慶蘭 金鍾秀
◇同一時二〇分 (東)管絃樂 東京放送管絃樂團
◇同六時 長篇兒童劇『順이』 中―朴興根作第二幕 兒童劇研究協會 指導南基薰
◇同六時二五分 農村講座(二)
◇同七時二五分 講演―(國民精神總動員強調週間第三日) 中樞院參議 崔麟
◇同七時五五分 時調(解說付) 玄石年 李秉岐
◇同八時二五分 野談『玄花白烈』 申鼎言
◇同九時 피아노三重奏 文學準 피아노伴奏 閔元得

第一放送
◇午後一時 講演(新京)
◇同一時二〇分 (東)管絃樂
◇同六時 (臺北)이야기
◇同七時三〇分 (城)講演
◇同七時五〇分 (大)日曜講座
◇同八時二〇分 (東)琵琶
◇同八時四五分 (東)드라마

流行歌의 淨化 流行歌懸賞募集

懸賞金
一等 一人 五十圓
二等 二人 三十圓
三等 五人 十圓
佳作 各 薄謝進呈
(但賞金以外의 後版權은本社所有에屬함)

現代의 文化領域에잇서서 그寵兒인 大衆性으로보아 流行歌는 거의 時代의寵兒인 느낌이잇스나 不幸히도 이때까지의 流行歌는 그詞와 調가 함께 頹廢低俗한것이엿슴으로 一般讀者의 慨嘆한바이엿는데 本社에서는 이러한 風潮를 一掃하고 새로운 流行歌의 出現을 促進하기위해서 이제 滿天下同好者들에게 淸新潑溂한 새流行歌를懸賞으로 募集해서 널리 頒布하려는바 이뜻에 同意하는분은만히 應募하기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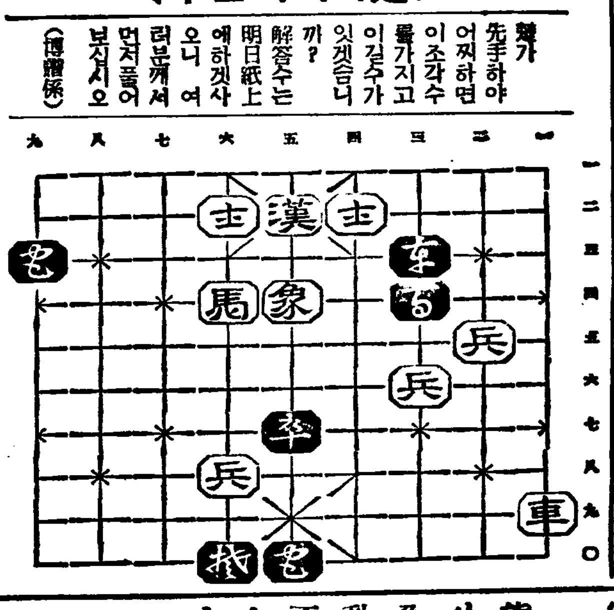
應募規定 一人三篇以內
應募期限 二月二十五日까지
審查方法 本社學藝部擔任
(注意)―投稿는 本社學藝部로하는데 封皮에 懸賞流行歌라 朱書하되 落選原稿는 一切返還치아니함

朝鮮日報社學藝部

◇博譜大集 81 【問題】

◀楚가이기는수▶

楚가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슴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보시오 (博譜係)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10)

白 盧史楚
黑 任佑植

敵의退却에따라 捲土重來하는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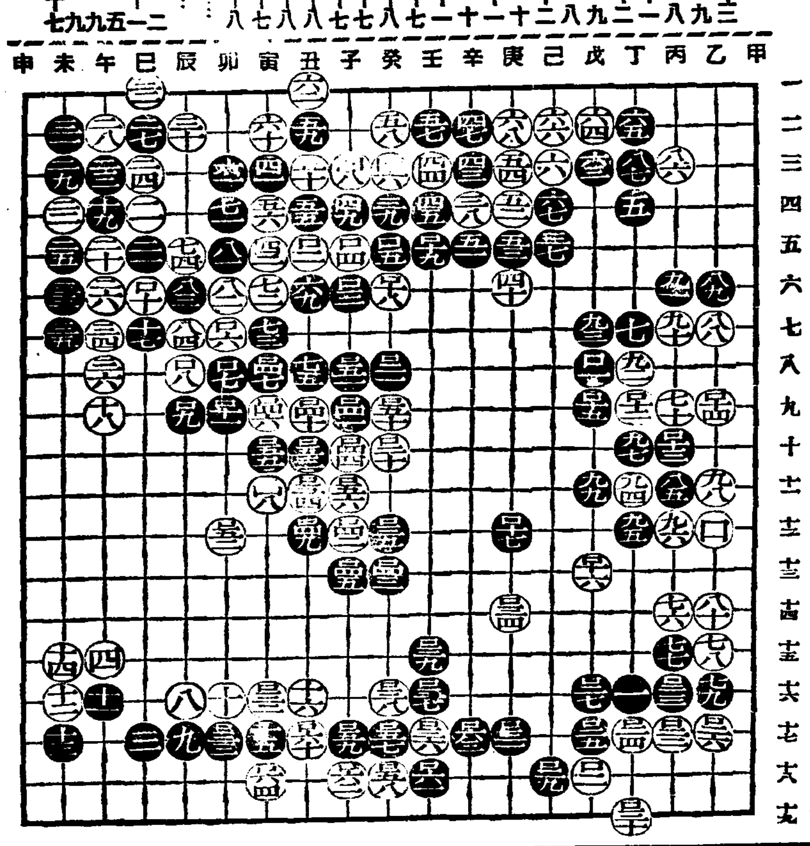
三玄子

어제 나는 朝鮮國手들이碁局을 對할때에 너무도 緊張이 적은것을 알엇다 그리하야 첫재 下手함이 輕率한것은 先手가 만흔事實이 立證하는대 그것은 下手함에 時間을 만히 쓰지안는 까닭도 잇겟지마는 노상 緊張한 注意가 不足하얏이 아니라할수 업다 그리고 前回에서도 말하엿지마는 定石에對한 注意가 不足하고 또 交換關係에 잇서서 打算이 敏捷치 못한것은 모두 對局함에 當하야 甚深한 緊張을 喚起치안는까닭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나와가튼 素人으로도 直感할수 잇스니 다른高手가보면 鼻笑치아니함을 保障할수업다 一局의評을마친뒤에 이말을쓰는것이 올흔일이나 評해가는가온대 느낀바를 同好者들에게 로라도速히알리는것이 조흘듯하야 無言을添한다

黑一四五子의一三 白一四六寅의九 黑一四七寅의八및 白一四八寅의一一은모다 當然한 酬應이오 黑一四九丑의一二는 初學者도 犯치아니할 失手이다 그로써 子의一二에잇는白一點을 몰린다고 中央에 鎭坐한 白二點을 끈을수잇는것도아니오 또 그下方丑寅各一一의 白二點을 貪한것이면너무도 局勢에 暗昧한 일이다 그리고 黑一四九를 丑의一二에 두지말고 辰의一一로飛走하야 中央으로부터 退却하는 白七點의 後路를 끈헛스면 白은 그를救함에 겨를이업서 有卷白地의 中央으로黑이 侵入함을 막을수업스니그리하야 이大場을 破壞하면白의大敗는 救할수업다 이것은國手尹周炳氏도 나와 同感이다 白一五〇癸의九 黑一五一子의八은 通例의酬應이오 白一五二卯의一二는 黑一四九丑의一二의先手를 利用하야 退却陣의完全한基點을지은것이다 黑一五三丑의一〇 白一五四丑의一一 黑一五五寅의一〇 白一五六子의一一은 모두 當然한일이오 黑一五七癸의一七도 辰의一一에두어 中央으로부터 退却한白八點을 壓迫하면서 右邊中央의 白地를 破壞하는것이올흘줄안다 이白地가 上邊中央의 白地보다 큰理만아니라黑이 辰의一二로 飛走하면 白은 應手치아니할수업다 그러고 黑一五七을 癸의一七에두어 이方面에서先手의 效果를 發揮하고 先手를 그대로 確保할수잇스면 적은것을 먼저하고 큰것을 뒤에하야도 關係업지마는 어제 그를確保할수업는것은 明白한일이아니냐 白一五八癸의一八은 高手를자랑하는 조흔着點이오 黑一五九子의一七 白一六〇丑의一七 黑一六一壬의一八 白一六二子의一八 黑一六三辛의一七 白一六四寅의一八은 모두 常例의酬應이다 그리하야 黑이 先手를빼걸것이 判明되엿다

●一四五 子의十三 ○一四六 寅의九 ●一四七 寅의八 ○一四八 寅의十一 ●一四九 丑의十二 ○一五〇 癸의九 ●一五一 子의八 ○一五二 卯의十二 ●一五三 丑의十 ○一五四 丑의十一 ●一五五 寅의十 ○一五六 子의十一 ●一五七 癸의十七 ○一五八 癸의十八 ●一五九 子의十七 ○一六〇 丑의十七 ●一六一 壬의十八 ○一六二 子의十八 ●一六三 辛의十七 ○一六四 寅의十八

…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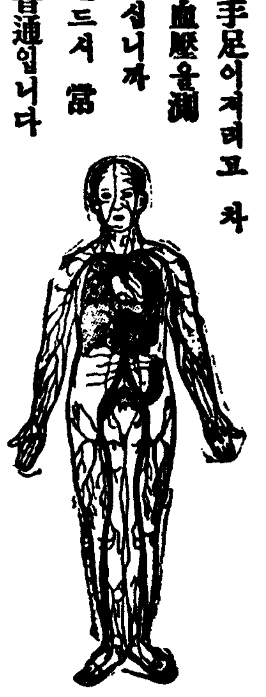


寒冷에因한高血壓과 手足의麻痺冷痛은 瘀血의 작난

어려한酷寒에 手足이저리고 차고아픈분으로서 血壓을測定해보신분이 게십니까

그런분이면 반드시 常態보다 노픈것이普通입니다

어原因을 모르고 추위때문인것쯤으로내버려두면 血行은 不順하게되여 外氣의激變에 對抗할수업서 動脈이 破裂해서 멀지안허 腦溢血의悲命에 빠지게되거나 輕해도半身不隨는 免치못하게됩니다 어病根이란것은 古方醫學에서 말하는『瘀血』이 體內에殘留해서 血液을濁하게하고 血行을妨害하야動脈을硬變시키기때문입니다 實로 무서운것은『瘀血』입니다



血液循環의圖

瘀血은體軀의녹

이러케하면健全케되여 腦溢血을未然에防止한다

頭腦에瘀血

『瘀血』이란―自古로『自慢과 瘡氣가업는者업다』라고하는만큼 젊은 血氣의過失에因한 感染毒이나 遺傳毒에 日常嗜好하는 酒煙草의毒들이 添加해서 血液을濁하게하야 血行을 妨害하기때문인데 이『瘀血』을從來는蛭과 吸角에依한 瀉血法、或은 峻下劑療法等으로治療해왓습니다마는 幾分의副作用잇는 缺點을痛感하고 現代 醫藥學的見地에서 이것을 再檢討한結果 穩當히體外로 排泄하고 血行을 調整하여서 腦溢血을 未然에 防止할수가잇습니다

辛苦하는어는 곡『血瘀療法』의一讀에依하야 그眞價를 實驗하라

手足의麻痺、冷痛이덜해지고 高血壓에非常한快効

布施市荒本 鈴木孝一

其後 每日빼지안코 먹엇삽더니 近日에는몸이편해지고 手足의차고 아픈症勢도 덜해지고 血壓도 常態가갑게까지 나렷습니다 이대로가면 腦溢血이되지안흘듯해서 거빠하고 잇습니다 至今에는寫眞과가티 元氣잇게되엿사온데 이것은專혀 フルチ錠의德分이라고 거빠하고 잇습니다

前東京吉原遊廓病院 小屋亘明先生創製

排毒과 順血에

フルチ錠

主効 腦溢血豫防 動脈硬化 血壓亢進 中風 半身不隨 心臟衰弱 貧血 喘息 リウマチス 神經痛 ヒステリー 頭痛 常習便秘

藥價 十一日分 三圓 廿二日分 五圓 五十日分 十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古醫學에서再檢討 (四六判美冊子)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시면送呈

◆이러한症狀잇는분은꼭一讀하라
▽頭重、耳鳴、肩胛痛、手足痲痺잇는분(中氣、神經痛)
▽動悸、息차고、盜汗、冷汗으로고생하는心臟衰弱한사람
▽便秘잘되고부흠으로고생하며잠못자는사람(梅毒、神經衰弱)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二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中部版

開城北本町總代 方夏榮氏表彰

【開城】지난十一일오전九시 기원절배하식(拜賀式)이 개성상업소학교(開城商業小學校)교정에서 거행되엿는데 총대표창 상품전달식(賞品傳達式)이 거행되엿는데 부내 북본정총대(北本町總代) 방하영씨가 영예의표창을 밧게되엿다 씨는 십여년간이나 언제나 정내를위하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야 시정(市政)에 협력하야 온 주의로서 ... 이라고 부민간에 다가티 칭송하는바이다

衛生과美觀上으로 緊急한細道路改修

市內各處主要幹線道路工事進捗에따라 ‖北村一帶에要望聲漸高‖

경성부에서는 지난소화십일년 십이월에 시가지계획 가로망의 결정을 본이후 소화십이년도부터 오개년계속사업으로 총공비 일천오백팔십만원을 던저 주요 간선도로 삼십선(線)총연장 삼십오『키로』의 개수공사를 착수하야 방금 진행중이거니와 경성부에서 착수한 도로계획은 폭원 십이『메돌』이상의 소위지 가지계획도로로서 폭원 십이『메돌』이하의 도로와 특히 북촌(北村)에 만흔 사『메돌』이하의 도로개수에 대하야는 제사기하수개수(第四期下水改修)와 부비의 하수개수사업으로 매년 십여만원식바게 예산에계상되지 안코 국부개수(局部改修)공사로서 약간의 개수를하고잇는데 불과한 현상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간선도로가 개수되더래도 이간선도로와 통하는 수만흔 도로(細道路)가 잇지 안흐면 안되는것이어서 경성의 뒷골목 특히 북촌의 좁은길은 의연하게 구태대로잇서 사『메돌』이하의 적은길은 하수구(下水溝)의 맘못함만흠 불량한것과 더부러 도시위생상 또는 보안상 내지교통상한심한상태에잇다

북촌적은도로의 하수구와밋그 개수가되지안는이상 이로말미아마 길바닥이 늘 진흙탕이되여잇서 교통에불편할뿐더러 그불결한 하수구로부터 비치지는오예물로인하야 각종전염병이 매개되여 그악영향이 놀랄만한것이잇다 경성부에서는 이에 대한 생각은잇스나 아직재원이업서 적극적으로 손을 대지못하는 지경이라고하는데 부민들 특히 북촌에서는 적은길의 하수구개수에 대한요망이매우크다

傳染病의溫床 細道路의下水溝

今後는이方面의改修에注力 ◇……京城府土木課當局者談

이에 대하야 경성부 토목당국자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물론 큰간선도로개수도 개수어니와 적은길의 하수구를개수하지 안코는 경성부내의전염병을 막을수가업습니다 큰것도 큰것이려니와 정작은 적은길의 개수사업이 여간긴요한것이 아닙니다 현재하수개수사업과 국부개수사업으로 힘껏하고 잇습니다만 차차예산이허락되는대로 이에 힘을 더써야 될것으로 금후 어세도로(細道路)의 근본적 개수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생각하고잇습니다 운운

精神作興講演會

藤塚教授와師橋大佐 十二日、京畿道廳에서

국민정신총동원주간 제이일인 십이일에 경기도청에서는 오후 두시부터 경성제대등총(藤塚)교수를 초청하야『漢籍御進講御奉仕의大任을맛드러마치고서』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엿다

그리고 마즈막날인 십삼일오후세시에는 경성부방공계(防空係)촉탁사교대좌(師橋大佐)의『上海及南京의新戰場을차저서』라는 연제로 강연회를열기로 되엿다 한다

篤行者六名表彰

紀元節에開豐郡에서

【開城】개풍군(開豐郡)당국에서는 지난십일오후한시 기원가절을복하야 이원독행자표창장급상품전달식(吏員篤行者表彰狀及賞品傳達式)이 이군수(李郡守)의 식사로써 내빈다수참석리에 성대히 거행되엿는데 영예의표창자는 다음과갓다

一、(面吏員篤行者)嶺南面下照江里區長 李敦勳
一、(時局關係篤行者)北面禮賢里 金九錫
一、(農村振興會表彰)東面高頭山里高頭山洞 農村振興會
一、(農村振興附設團體表彰)中西面興陵里杜門洞 農村振興會附設靑年部
一、(農村振興會幹部表彰)西面龍山里新谷洞振興會會長 趙韶淳
一、(靑年團體表彰)東面靑年團團長 金得衍
一、(勤農共濟組合指導者表彰)嶺北面古德里二區 李孝用
一、(農村振興會指導者表彰)興敎面

賭博黨四名을 開城署서取調

【開城】구정초를 이용해서 부내 회룡촌인 남산정(南山町)모방면에서는 부내 일류도박당과 부외 일류도박당들이 한데어울려가지고 개장하고잇다함을 탐문한 조순사(趙巡査)는 지난구일오후한시경 가튼정 임배삼십번지 오광춘(吳光春)(三七)의 집을 습격하야

開城府南山町一三三 朴致成(四七)
開豐郡靑郊面陽陵里 李明龍(四〇)
開城府南山町六五二 朴千男(四七)
開城府南山町一三〇 吳光春(三七)

등네명의 도박당을 일망타진하는 동시 판돈칠십전과 증거품으로 화투한목까지 전부압수하야가지고 본서로 압래하야다가 엄중취조한결과 이들은 한패에일전식걸고 늘어가기놀음을 하다하나 도박상습자로 전죄가 상당히 만흔것으로 인정한 경찰은 여죄를엄조중이라한다

仁川府內各普校 今日부터願書接受

眼鼻莫開의戶籍係

【仁川】인천부내각공립보통학교 입학원서제출기일은 금십이일부터 각보통학교에서접수한다함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이에따라 인천부호적계에서는 지난사일부터 원서를접수하얏는데 동팔일까지 구백여통이나 된다하며 지난 구일은 시간전부터 부민이운집하야 대혼잡을 이루엇다는바 양일간의 접수된것만 유백여통에달하야 그전것을합하면 일천오백여통이나 된다한다 원서전수는 금일부터인데 벌써 그와가티 다수에 달하야 아프로 어십일간의 하로 이백명평균으로한다면 사천명은 무난히되리라는 관측으로 잇다는데 일반의주의할점은 부내에 본적(本籍)을둔 부민들은 부청에서 원서에호적초본의 증명을 바더야 당해구역학교에 제출하는바 이것을모르고부내에 본적을둔부민들까지도 호적초본을청구하는 폐단이만타는데 일반은 어점을만히 참작하야 일혀원서를제출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原料輸入難에逢着 仁川紡績界恐慌

일꺼리업서작업시간단축으로 東紡工場千六百職工休業狀態

【仁川】면화통제와 원료수입난으로 종래년적인천공장(東紡仁川工場)에서는 조업시간 단축을 단행하얏다는데 종전에는주야교대로 작업을계속하야오든 것을 지난일부터는 어상이리공원에게 휴가를주어 일개월평정시사오일바게 취업을못하게 된다는 그들은 일일 삼사십전의 일급으로근근생활하야 오든 것을 금번에가서는직에따라그나마도 생활의 위협을 느끼게되여 일반의공포는 일대공황을자아내고잇다하며 공장측의말을드르면 원료수입난으로 당분간은 부득이이상태를 면치못하겟다한다 그러면 면화대용품으로는 『스테풀·파이-버』(人造絹)를 대판으로부터직수입하리라고한다

誠米를모아獻金

永登浦町民의熱誠

【永登浦】부내 도림정(道林町) 제이구 총대리장하(李章夏)씨주최로서 출정군인(出征軍人)을 위문하기위하야 작년십이월십오일부터 지난일월이십사일까지 사십일간 정내일백삼십일호(百三十一戶)의 부엌케다 주머니를비치해노코 조석때마다 성미(誠米)를 모하오든것을 수입전에전부수합하야 대금(代金)으로 바꾸어본결과 사십일원팔십전에달함으로 곳소관영등포경찰서에헌금수속을 하엿다한다

船夫끼리言爭끄테 食刀로亂刺即死

朝陽丸船上의流血劇

【仁川】인천부내에는 요사이자살사건이 빈번하엿는데 또지난 십이일오전열한시 삼성부동에는 부내화방정(花房町)림정(林廷)제 이조양환(第二朝陽丸)선부 부성단(夫成端)(二一)은 동선선부 김정순(金正俊)(二二)과 오래전부터 감정이조치못하야 수차싸홈을 계속하여오다가 동선간판우에서 싸홈이시작되며 일대란투끄테 전기부성단이가 척가량되는 식도로 김정순의복부를찔러 선상에는 일대유혈극을 연출하엿다하며 피해자를직시 부내신정(新町)목뢰(牧瀨)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수당을가하엿스나 동열두시에 절명되엿는데 가해자 부성단은 인천서에 유치시켜 취조중이라한다

一月中의穀物出廻 十一萬五千九石

仁川物産客主組合取扱

【仁川】곡향인천에는 금년드러서 곡물출회가얼마나되엿나 인천물산객주조합(仁川物産客主組合)의 지난일월중 곡물출회동계를보면 십일만오천구석으로 작년십이월에비하면 십오만 구천칠백여석의 격감을보엿다는바 그원인은 일월중에는 혹한으로인하야 운반관계로 선박출입이두절되여 만흔곡식도 잇섯다하며 추경기를압둔 봄에는 일반농가의 매석하는편계도 업지안타하며 각지로부터 출회할곡물파산지는 다음과가다한다

一月中穀物出廻(仁川物産客主組合取扱分)　(單位石)

忠南唐津	二三、八七七
〃 瑞山	二三、一五六
黃海金津	二一、四〇五
京畿江華	一四、二六九
黃海延白	二一、六一九
京畿金浦	三、八七二
〃 振威	一、二二六
忠南牙山	一、八〇八
京畿開豐	六五四
黃海長淵	五〇〇
〃 海州	三〇八
京畿水原	一一五
總計	一一五、〇〇九

方面委員會에 李康勝氏出席

경성부 동부방면상무위원 리강승(李康勝)씨는 오는 십오、륙량일간 국방면위원 대표자회의에 출석코저 십이일오후세시십분차로경성을 떠낫다

永登浦에서 申不出漫談會

本報支局後援으로

【永登浦】만담계(漫談界)의 인끼자 신불출(申不出)씨의 만담대회(漫談大會)는 오는십사일밤 영등포연예관(演藝館)에서 세원당약국(世元堂藥局)주최와 본보영등포지국(永登浦支局)후원하에 개최될터인데 당지에서는 이러한 전례가 희귀한만큼 벌써부터 비상한 인끼를 집중하고잇는바 당야의 입장료는 계상(階上)계하(階下)의 구별이업시 오십전식으로 예정되엿스나 특히 본보독자에게는 십전식 할인을 하기로되엿다

商工實務員講習

【仁川】기보한바와가티 인천상공회의소주최 상공실무강습회는 십이일오후칠시에 개강(開講)한다는데 신청자수는 벌써오십여

仁川의流行感冒 小學生에게尤甚

缺席兒童一八〇名

【仁川】갑자기 추워진기후로인하야 인천부내에잇는 각소학교아동들은 유행성감기로 인하야결석아동이 다수에 달한다는데 지난십일현재에 독감에걸려 결석한아동이 욱소학교(旭小學校) 구십오명 아동수의 약팔분 룡강소학교(龍岡小學校)팔십오명 아동수의 일할이분의 결석자를 보엿다는데 대개는 일어학년생들이라는바 학교당국은 대신(大神)학교의(醫)와 협력하야 전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일방 병마의 박멸에 진력하는중이라하며 그반면에각 보통학교아동들은 대체로 건강하다고한다

支那戰跡展覽會

三越"갤라리"에서開催 ‖十八日부터廿二日까지‖

경성군사후원련맹에서는 ○○부대전적전람회(戰跡展覽會)를오는십팔일부터 이십이일까지 부내삼월(三越)백화점오층『갤라리』에서 열기로되엿는데 인연기픈장사의 활동을 전개관람시키기로되엿다

刺身鬼

【開城】지난음 일오후칠시경개성부내대화정(大和町)통으로 보꾸러미를긴 어떤수상한이가 지나가는것을 마츰 순행하든 경찰이 검문한결과 보꾸레미에선 다량의 영속(罌粟)이 발견되자 그의 신원일절을 엄중히추궁하얏더니 이자는 작년오월초순부터 금년이월사일까지 수회에궁해서 경성서소문정(西小門町)으로 지나인으로 부터 "모루히네" 약백여원어치를 비밀리에 사다가 이래아편수사를 일삼어오든중 요즉그는 때가만시할 아편생이가 되지안켓다는 비장한 결심을하고 바로그날 남본정(南本町) 모한약종상(某漢藥種商)에가서『영속』두근을 일원오십전에사다가 아편수사대신 이것을 피여가지고 아편쟁이의 신세를 면하려햇든것이라한다

江原道會召集

廿六日부터九日間

【春川】칠백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심의할 강원도회(江原道會)는 오는 이십륙일부터구일간 강원도청회의실에서 개최케되엿는데 선거후 최초의도회(道會)니만치 맹렬한론전을예상하고 일반은 고대하는중이라고한다

長篇小說 林巨正【46】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소굴(十四)

꺽정이가 한나절 검씨와 가치잇다가 밤에 다시오마고 말하고 의관을 차리고 원씨의집으로 왓다 오래간만에 원씨의집 맛는 맛갓진음식으로 점심을 먹고 원씨와 둘이 방에안저서 이야기를할때 동자치가 여러노흔 박문아페 와서 원씨를 드려다보며

『아씨 섬미실이가 선다님 오신줄을 알구 보이러와는데 어떠캐요』

하고 무럿다 꺽정이는 섬미실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누가와서』

하고 채처무를때 원씨가 웃스면서

『당너머집 하인이 보이러 와 바요』

하고 말하엿다

『당너머집 하인이라니』

『노가말슴이요』

『그놈이 왓스면 그대루 드러올께지 무슨 연통이람』

『노가가 사람이 하두흉물스럽다기에 내가 집안에 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엇세요』

꺽정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데 섬미실이란 무어야 노뱀이가 변성명을햇나』

『집의할멈이 자살굿게 그런성명가튼 별명을 지어놧세요』

『섬미실이란 성명에 무슨 별뜻이잇나』

원씨가 마루에안젓든 할멈생이를 내다보며

『할멈 섬미실이 무슨뜻이냐고 물으시네』

별명지은 사람더러 그뜻을 말하라고하는데

『아씨가 잘아시면서 왜 할멈을 끌어대시여 할멈은 정신이 사나와서 이젓습니다』

할멈생이가 딴청을 썻다

『무슨 말하기어려운뜻인가』

꺽정이 말에 원씨는 아니라고 고개를 살래살래 가로흔들엇다

『그럼 왜 서루 밀우구 말을 안해』

『섬은 섬놈이란 섬이구 미는 미치광이 미구 실은 실보이라나요』

꺽정이가 섬미실의뜻을 듯고 한바탕 껄껄 우슨뒤 동자치를 보고

『나가서 들어오라구 그러게』

말을 일럿다 동자치가 박그로 나가지 한참만에 몬지 켜안즌 갓을 쓰고 퉁퉁한 무명 홋두루마기를 입은 노뱀이가 가장 흉물스럽고 두벅두벅 거러들어오더니 마당에도 서지 안코 툇에도 서지안코 바로 마루우로 올라왓다

『어디루 올라가』

동자치가 뒤따라들어오며 나무람하고

『전동햇나』

꺽정이가 한마듸 노뱀이는 모두 즈며 욕하는데 안방문아페 가까이와서 내다보는 꺽정이에게 공손히 문안을 드리엇다

『잘 잇섯느냐』

『예 덕택으루 잘 지냇습니다』

『네처한테 구박을 얼마나 맛느냐』

『제첩년이 저라면 끔찍 죽습니다 구박이 다 무업니까 그러구 사내처것이 기집년에게 구박을 맛구야 지집대를 이마에 부처다닐수잇습니까』

『저놈이 첩이라구하다가 기집예게 뺨을 안마젓까』

『천나 첩이나 기집은 마찬가지지요 저두 선다님을 본바더서 적서분간 안습니다』

『누굴 본바더 여 미친놈아』

『선다님께서 저를 데리구 실업시하시느라구 미친놈 때호를 채워주서서 치마두른사람께지 저를 아주 미친놈으루 몰읍니다 창피해서 죽겟습니다 제발덕분에 인제부터는 실업스신말슴으로라두 미친놈이란 놈이라니 하지맙시요』

『저놈이 아주 미치지안헛나』

『선다님 야숙두 하십니다』

『이놈 고만 가거라』

『예 물러가겟습니다』

노뱀이가 그제사 돌아서서 할멈생이를 보고

『각골 아전은 원님잇는 동헌 마루에 못올라가지만 장막(將幕)의를 차리는 장교들은 올라가우 나두 선다님의 막하(幕下)니까 마루에 올라와서 문안을 드린것이요 어우리여편네들이라두 그런것쯤은 알어야하우』

가르치듯 말하는데

『쓸데업는소리 고만짓거리구얼른 나가거라』

꺽정이가 꾸지젓다 노뱀이가 뜰우에 나려서다가 머리를 도리켜서 원씨를 보고

『제가 어버엇을때버럼 떡 수척하셧구먼이요』

하고 말하는것을

『이놈』

꺽정이가 호령하니

『아니올시다』

하고 목을 자라가티 움츠리고 중문을 처서 박그로 나가고 진둥걸음을 갓다

女의藥은中將湯

CHUJOTO

月經不順이싹업서지고、冷症이낫고、顏色이히고아름답게된다

中將湯이라는婦人藥은 外見上으로舊式인『다리는藥』이기때문에 오늘의젊은婦人들間에는 有時로 輕視되는 傾向이업다고도 할수업습니다 日支戰以來 急角度로 盲目的西洋崇拜熱이降下된것은實로欣喜할바입니다마는 아즉近代人의頭腦속에 한모퉁이에는 藥으로는 湯藥가튼것은 묵은것이여서 조치못한것이라는印象이 남어잇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正確히 알려드리고저하는知識으로서中將湯가튼性能을 가진藥物은 아모래도舊式으로 다리지안흐면 그完全한效力을 發揮하지못한다는 點입니다

中將湯의材料로되여잇는 十餘種의貴重한植物性藥物의 成分을檢討해보면 第一로 人體의强壯原으로서 먹으면 成分이全身에 도라서 各機關의作用을 强하게하는것인데 그作用이 微妙한만치 原料의藥草와藥樹에 化學的處理를 加할경우에는 分析上으로는 別般의差異가업서도 人體에쓰일경우에는 多大한隔隔이생기게됩니다 例를들어말하면 中將湯을마시면 顯著히 子宮의內分泌가旺盛히되여 月經不順가튼것은 제절로업서지게됩니다 그러나 中將湯의原料에서 主成分을化學的으로 抽出한錠劑가튼것으로는 內分泌를 刺戟하는作用이極히 鈍해집니다

좀까다로운 理論을 말슴해서婦人讀者에게는 어려울것갓습니다마는 貴重한身體를 保護하는것이오니 某條款 認識을 기괴해주시기바랍니다

以上의原理로돌적에 中將湯은 다리는약이므로 그成分이발끗까지 充分히 돌게된다는뜻을 알수잇습니다 冷症을 곳치시고貧血을 恢復하서서 아모조록 아름답고 元氣잇는 얼굴이 되여주십시오

主效: 上氣頭痛 眩暈 足腰冷 月經不順 下腹痛 히스데리ー 神經衰弱 子宮病 帶下症 胃腸病 産前産後

(定價) ¥.20 ¥.50 ¥1.00 ¥2.00 ¥3.00 ¥5.00 ¥10.00

本舖 株式會社津村順天堂

다린약이므로

발끗에까지도 藥기운이돈다

002604

酷寒のお肌の護りに國産無敵を誇る

人蔘の精石鹸

體位向上

國産愛用

全鮮主要地煙草小賣店發賣

經濟解說 代用纖維工業 ①
「스·파」以外의重要한것

以來 代用纖維工業은 드듸여 重大한位置를占하게되엿다 即 綿絲는 月產平均 三十三萬梱 어엿든것이二十萬梱以下로 減產되지안흘수업는事情에 至하고 羊毛工業과가튼것도 아직 原毛의輸入許可에 依하지못하고 大部의機能을 行하고잇는 現狀으로 아마 本年「스·파」의原毛買付는 二十七萬俵가량이라고 觀測되여잇다 政府는 其對策으로서 人絹其他强制混用을 行키로 決定하엿는데 어...

長期戰下朝鮮農業 生產力擴充方針
土地改良·灌漑改善·旱害對策
實質的으로產米增殖

長期戰에 對處할 朝鮮의農業的立場은 全日本을通하여본 農業生產力의 擴充이 重要任務가 되여잇다 即 內地의農村出征兵士로因한 勞働力의 減退、馬匹의 不足等으로 內地農村의 農業生產力이 不足이念慮되고잇슴에 朝鮮으로서는 어때에 一層 農業生產을 擴充할必要에 直面하야 予先 米穀의增產이 緊急事가 되여잇다 이에 農林局에서는 벌써부터 生產擴充 四個年計畫等 政府의 方針에依한增產案을 作成中이엇는데 오는二十三日부터 三日各道土地改良技術官會議를 召集하고 討議를거듭하기로 되엿다 同會合의 諮問事項으로는

一、時局에 鑑하야 農產資源의 開發과 農村振興上 土地改良에關하야 取할方策

二、應急對策準備로서의 灌漑改善工事의 測量設計實施에 關한 水道의取할方針

의 二項目이나 그內容에 들어가서는 灌漑改善工事、測量設計의實施 旱害對策의小規模 地上改良事業及 耕地 整理事業 國有財產法實施에 伴하는 未墾地의 取扱과 그 土地改良方法에 依하야 實質的으로 產米增殖의效果를 나타내일 여러가지 方途를檢討키로되엿다 이로써 旣往에 一段中止되엿든 產米增殖計畫의 復活이라고는 볼수업스나 小規模의 土地改良事業外에 耕地의集約的利用等으로 大資本을 要치안흘 範圍內에서 增產을目標하는것이어 여러한方策의試驗은 長期戰下의 朝鮮農生產力에 格段의 彈力性을 줄것으로 注目되고잇다

的立場은 國策에順應하야 여러한 多數의 農村人口를 減少시켜 國防上으로는 政治的으로보아 決코 穩當한政策이라고 생각할수업다

農家戶數減少 國防上反對
農相·當局方針明示

【東京】衆議院의 農村問題論議에서 各議員等이모두 耕地狹少가 農村疲弊의 原因이라고하야 其對策如何가 質問의中心이되엿는데 七日의農地調整法案委員會에서도 同一趣旨의質疑가 再三反復되엿다 이에對하야 有馬農相은 農村에 可及的多數의 人口를包擁하는것은 國防上、政治上 極히必要하다고하야 農家戶數를 減少시키는데 絕對反對意見을開陳하엿으며 農林省今後의 移民政策에對한動向을 示唆하는것이라고하야 注目되엿는데 即農相의答辯要旨는 如左하다

現在의 耕地面積은 北海道를合하야 全國平均 一戶當約一町步인데 이러케 狹少한土地로서는 一戶의生計를 維持하기가困難하다 따라서 農家經濟라는觀點에서보면 耕地의擴張을圖謀하던가 乃至는 戶數를減少함에依하야 一戶當耕地面積을擴大할必要는 充分히생각하고잇다

耕地擴張에對하야서는 各種開墾을奬勵하고잇는데 現在施設로서는 開墾하는一方 潰地가續出하야 耕地面積은 現狀以上을 버서나지못하는實情에잇다 그래서 農家戶數를 斷然減少시키면 엇더가생각하는데 假令 一戶當一町五反을耕作시킬必要가잇다하면 約四割의戶數를 減少시키지안허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農家의經濟

肥料를專賣하라
議會에建議案提出

衆議員代議士有志에依하야 肥料專賣에關한 左記建議案이 今議會에 提出되엿다 「政府는 速히 肥料의製造、販賣及配給에關한 事業을 官營 또는 半官半民營으로하야 原則的으로 肥料를 政府의專賣로하기를바란다 右建議」提案理由는 肥料의 良品을 豊富하고도 低廉容易하게 農村에 供給함에는 肥料의製造、販賣配給을 營利業者에게 放任하야 政府는 單純히 價格、販賣等의 統制를 行하는 程度로서는 目的을達成키困難하므로 其根本的解決方法은 政府專賣 以外에는 別方途가업다함에잇다

古金、鑄溶金塊
指環·時計類도買入
古物商이하든것을鮮銀에서

古金、鑄溶한金塊等의買入에關해서는 朝鮮產金令其他에 何等規定이업스나 產金令成立의由來等으로보아 指環、時計類도形態明瞭한것은勿論 原形不明瞭한것도모두 新產金과同樣으로 買入하야 積極的으로 金의蒐集에努力할것으로 解釋되어 朝鮮銀行에서는 資願者의 住所姓名과 原品名을 屆出케한다음 이를買入하여 現在古物商의 손으로賣買되고잇는 金塊吸收에 努力케되엿다

朝鮮製鍊 機構刷新改革

鮮銀利益處分
純益九十二萬圓

鮮銀의 下期決算總會는 十四日開催할터인데 其利益金處分案(四分配當)은如左하다

當期總益金	三〇、五五六、〇六八圓
當期總損金	一九、六三二、八六〇
差引純益	九二六、一九六
前期繰越	三二九、六七一
合計	一、二五五、八六〇
內	
損失補塡準備	三五〇、〇〇〇
配當平均準備	五〇、〇〇〇
役員賞與及交際費	六五、〇〇〇
舊株配當(年四分)	三〇〇、〇〇〇
新株配當金(年四分)	一〇〇、〇〇〇
後期繰越	三九〇、八六〇

前當期의償却은 債權償却 五、三六〇千圓

綿業統制不備續出
標準價는빈말뿐
全面的統制確立要望

輸出向純綿布 國內販賣禁止

宅扱好影響

朝鮮米袋入問題 大阪에서또紛糾

硫安手數料增額陳情
十四錢은無利益
外上五分利子도不滿!

投資壽命繼續

株式 賣抑되나 强堅

今日의市勢(十日)

强氣堅持時代

市場

弱氣側의觀測

國債 小口賣買 浮動

期米 買氣不振 賣浴

强氣側의主張

正米 處分賣로 低落

海外經濟

[illegible]